朝鮮日報 夕刊 十九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鮮鶴

年額八十億目標로 國民貯蓄奬勵

十九日閣議서 藏相說明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九日의 閣議席上賀屋藏相의 提案에 依한「國民貯蓄奬勵에 關한件」에 對하야 打合을 하고 長期戰에 對應할 財政經濟政策의 第二期工作에 着手한바 右打合及 說明의 內容은 左와 如히 年額八十億圓의 國民貯蓄을 目標로하고 樹立된것이다 그리고 政府는 同日午後四時 首相官邸에 貴衆兩院代表者를 招待한後 右藏相이 說明하고 協力을 求하엿다

◇國民貯蓄奬勵에 關한件 今後豫定된 巨額의 國債의 消化를 圓滑케하고 또 必要한 生産力擴充資金의 供給을 圓滑케하게하랴는 此際에 貯蓄을 圖謀할 必要가 잇스며 또한 將來支出하게될 巨額의 政府資金의 國內散布에 依하야 生할 臨時的國民所得이 消費의 增加에 充當되는데 잇서서는 物資의 不足、物價의 騰貴를 招來하야 經濟界에 及할 惡影響이 至大할것이오 乃至는 軍需及國民生活에 支障을 生할 憂慮가 잇슴을 認定하게 되므로써 此際國民으로하여금 可及的限 貯蓄에 努力케하는것은 가장 緊要한것이기때문에 政府는 이方針에 依하야 國民의 貯蓄奬勵에 努力케하는바이다

賀屋藏相

貯蓄奬勵方針要旨

【東京電話同盟】賀屋藏相은 現下의 財政經濟政策遂行의 根本問題로서 貯蓄奬勵運動의 普及徹底를 圖謀하려고 十九日 閣議席上 政府의 協議로서 貯蓄奬勵方針을 決定케 되엇는바 그要旨는 左와 如히 今後一年間에 八十億圓程度의 貯蓄을 目標로하게된것이다

一、貯蓄奬勵의 必要

今後一年間에 發行될 公債는 五十億圓以上에 達할 모양이므로 이것의 消化를 圖謀하야 國民貯蓄의 一大運動을 이르킬 必要가 잇다 萬一에 國民貯蓄에 支障을 招來하게되는 境遇에는 巨額의 軍事費散布에 依하야 物資의 需要를 激增하며 延하여는 物價騰貴를 招來하야 惡性인플레를 誘致할 傾向이 업지안타 그리고 貯蓄奬勵는 生産力擴充의 點에서 생각하여도 大端히 必要하다 冗費를 節約하야 餘裕잇는 資金을 이方面에 充當하는것이 急務이다

一、貯蓄奬勵의 目標

本年中의 國民所得額은 巨額의 政府資金의 散布에 依하야 約二百億圓을 突破할것으로 생각하는바 政府는 이中에서 八十億圓程度의 貯蓄을 目標로하는것이요 政府는 그可能한것을 確信하는바이다

首相積極的態度

決意表明까지의 經緯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對支方策의 徹底的遂行에 依하야 膠着狀態의 政局을 打開, 政府와 關係方面과의 調整을 圖하는것이 現下의 喫緊事라는 見地에서 內閣改造에 依하야 現狀을 打開할것이냐 現在의 閣僚로 다시 對支方策을 敢行할것이냐 或은 退하야 後繼를 策할것이냐를 病床에서 여러가지 考慮하고잇든바 末次內相、鹽野法相等 强硬進言에도 不拘하고 首相自身의 健康狀態로보아『無責任한일은 하고십지안타』하야 後繼內閣의 [illegible] 豫想만서면 언제든지 그만두겟다는 本心이엇다 그러나 그後情勢는 對支方策의 遂行에 關하야 從來의 膠着狀態를 脫하고 漸次『調整』에 向하야 動하는 形勢가 觀取되게되엇스므로 去十六日木戶文相과 會見하엿슬時에도 此點에 關한 微妙한 會談이 行하고 다시 十七日 多田參謀次長과의 會見에 依하야 徐徐히 心境에 變化가 이러나 退하야 後繼를 策하는것이 此際에 最善의 方法이 아닐까하고 首相의 心境은 消極的態度로부터 [illegible]

新次積極的으로 時局打開에 邁進하겟다는 心境으로 變하야 十八日夜의 風見書記官長談의 形式으로 首相의 決意를 表明하엿스며 木戶文相의 國公과의 會見以前에 心境의 公表를 한것은 時局의 微妙한動向에 鑑하야 老公에게 正式發言을 하게하야 責任을 回避하게함을 避하고 어데까지든지 自己의 政治的責任으로 萬事를 處理하야 時局打開에 對處하려는 것으로 解釋된다

南支方面爆擊

【上海十九日發同盟】海軍報道部 [illegible]

總督、內鮮一體强調

總監、一般的施政方針을 指示

非常時局下의 道知事會議

今日總督府內에서 開幕

全半島가 빗나는 希望에 滿溢한 陽春 昭和十三年度初頭를 事變下未曾有의 緊張裡에 迎하야 茲에 定例各道知事會議는 十九日午前九時三十分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되엿다 內鮮一體와 皇民精神의 透徹을 基調로한 南總督施政下에 半島統治가 陸軍特別志願兵及 改正敎育令等二大制度의 實施에 依하야 一時期를 劃하고 只今이야말로 內鮮一體의 渾然融合에 立脚하야 五億을 超過하는 稀有의 膨大豫算에 躍動하는 半島의 全面的進展에 拍車를 加하야 長期戰時體制에 對備하려는 物心兩全의 體勢한 施政方面을 推進하는 第二段階의 發足點에서게되니 會議의 使命은 益益强化되엿다 (會議는) 知事會議는 南總督臨場하고 大野政務總監以下 忠南知事以下 全鮮十三道知事出席 總督府側으로부터 吉田遞信局長以下 各局長、官房各課長、軍部로부터 北野參謀長 二宮憲兵司令官(代理) 內地拓務省으로부터 關島書記官 滿洲國으로부터 李間島省長 別宮安東省次長 桑內務局參事官等列席 大野政務總監이 먼저 開會를 宣言한後 臨場의 南總督은 徐徐히 壇上에 올라 非常時下의 半島統治指針을 闡明하야 特히 具體的事項에까지 言及하야 烈烈한 訓示를 行하엿는바 그要旨는 如左하다

南總督訓示要旨

新年度의 當初에 際하야 道知事會議를 開催하고 施政의 槪要에 關하야 所信한바를 披瀝하고 또 各位로부터 管下事情의 報告와 施政上의 意見을 聽取하랴는바이다

支那事變은 發生以來 이미 九個月餘를 經過하엿다 此間 御稜威下에 皇軍의 忠勇과 作戰의 優秀에 依하야 偉大한 戰果를 收하야 國威를 世界에 宣揚하엿슴에 對하야 各位와 함께 深厚한 感謝를 捧하고 併하야 一死君國에 殉한 將兵의 英靈에 對하야 삼가 敬弔의 意를 表하는바이다

回顧컨대 昨年의 本會議에서 予는 施政의 重要方針으로 五項目을 各位에 示하는同時에 道內官民의 了解를 求하고 鞏固相携하야 其具現을 期하엿다 (中略) 五大方針은 統治의 根本義인 內鮮一體의 本流에 沿하야 一段새로운 意義를 加하고 其實績을 表할수 잇슨것이다 [illegible]

一、五大政綱과 內鮮一體 [illegible]

英伊協定餘勢로

英東洋權益再建企圖?

【倫敦十八日發同盟】英國政府는 英伊協定의 成立에 依하야 오래 膠着狀態를 繼續하야온 歐羅巴政局도 겨우 安定으로 向하고 잇슴으로 英佛會談、佛伊交涉의 多角的外交交涉에 依한 新平和機構에의 期待가 [illegible] 昂揚되고엿서 此際英好轉의 餘力을 모라 東洋에 잇서서의 英國權益의 再建을 圖하려는 意圖인지 全然 [illegible]

斗號事件賠償金 一兩日中에 支拂

【東京電話同盟】昨年十二月十二日 南京附近에서 我海軍機의 誤爆에 依하야 [illegible] 米國政府로부터 [illegible] 二百二十一萬四千七卅三十五個(邦貨約六百七十萬圓餘)의 補償要求를 [illegible]

伊佛交涉遂開始

【羅馬十八日同盟】英伊協定의 成立에 際하야 [illegible] 十九日午前 [illegible] 十一日에 會同하기로 되엇다

九萬의 支那學生 第一線에 參加!

【上海十九日發同盟】支那側 [illegible]

時事解說

滿洲의 人民投票

[illegible]

現下에 緊要한 總督指示事項

[illegible]

人事・集會

▲金東勳氏(忠北知事)道知事會議出席次入京 朝鮮호텔에 ▲鄭僑源氏(忠南知事) 同上 ▲孫永穆氏(全北知事) 同上 ▲新貝肇氏(全南知事) 同上 [illegible]

人面錄

[illegible]

單一個年으로 中學全科目卒業

國民中學講義

今回의入學者에게는 [illegible]

比類업는大附錄進呈

게다가學費는一月一圓

1 書法教典(中等習字手本檢定)
2 新撰國語讀本
3 新撰漢文讀本
4 最新英習字帳
5 青年立身法
6 書法教典(中等習字手本行・草書)
7 獨習自習法
8 ペン字上達法
9 高等英習字帳
10 獨學受驗法
11 國民英語讀本
12 中學全科中辭典

趣味와實益「近代青年」每月進呈

內容見本進呈

國民中等教育會

어떠한 職業에도 「英語」獲得이 先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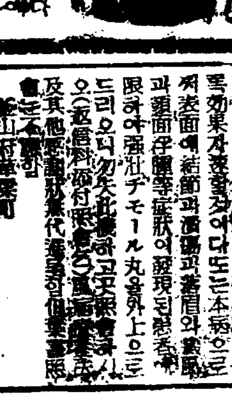
올림픽大會萬國博까지 不過二年 商戰最後의勝者는語學의所有者

英語講義錄

井上通信英語學校

日本ペン習字

井上千圓先生



風病

山鉱機械 農具工具

平壤南門通 五六商会本店

胃腸을튼튼케하고 身體를强壯케하는 肥滿劑

小川藥院

苦草製粉都賣

丸星商會

新編入府域의井戶中 八割三分이飮料不適
府民保健上重大問題
京城府衛生課의水質分析의報告

경성부의 수도는 구경성부역은 그다지 별문제가업스나 신편입지역에는 수도가 들어가지 안허서 주민들이 대단한곤난을 밧고잇스며 대경성의 부민이면서 예날그대로의 우물물을 먹고잇는곳이 매우 만흔현상이다 현재 경성부내의 음료용의 우물이 일천삼백삼십오개소나 되는데 이와가티 수도가 보급되지안허 다수의주민이 음료수로 쓰고잇는 우물의수질이 과연그 음료에 적당한가 안한가는 부민보건에 큰영향이잇슴에비추어 경성부위생과에서는 적야(荻野) 파강지회아래 최도원(崔道元)기수가담당하야 지난소화십일년부터 십이년까지 어대동안에 신편입지역 용신삼개정(町)에잇는 오호이상 공동사용의 우물칠백칠십개의수질을 다액의조사비를 드려 조사분석한결과 음료에적합한것이 겨우 일할칠분이라는 놀라운사실이 판명되어 아프로 여름철의 전염병기를두고서 칠십만경성부민의 보건위생상중대문제로되여잇다 즉 칠백칠십개소의우물중에 화학성분(化學成分)으로서 음료수로써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것이 겨우 일백삼십오개소 밧게 안되여 우물 전부의 일할칠분밧게 안되여 나머지 팔할삼분이 음료에 적합치안타 그중에도 리태원정(梨泰院町)보광정(普光町)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 아현정(阿峴町)등의우물이 가장낫바서 전국 생수로시험한결과 염분(鹽分)은 일『릿틀』에대하야 삼십『미리』이상은음료수에 적당치 못한것인데 최대가 일백칠십『미리』나되고 평균이 삼백육십칠『미리』가되여서 표준량보다 팔십배이상이 낫부고 유기물(有機物)로보면 불순물이 만허서 역시 수도물의 십배이상이나 만히 섞겨잇다 또 세균(細菌)성분으로보면 거진다 음료수에 적합하지 못하며 가안히부민위생에 큰영향을 미치고잇다 이와가튼 중대사실을 경성부위생과에서는 그 주경찰서와 장단경찰서를 통하야 대책을세우고 예의강구중으로 근일중 보건위생의 큰일임으로 긴급히 대책을 세우기로 되엿다 그리고 작년도에 경성부에서 신편입 구역에우물사십개소를 판것에대하야 매월 그수질을조사하여본 결과 우물이 달이갈수록 더러워지는 사실이 드러낫는데 이것은 우물사용자들이 위생관념이 업고 우물을깨끗시간직하자는 공덕심이 업슴에원인한다는것으로 일반우물사용인은 우물을 될수잇는대로깨끗하게보관하는것이 극히 긴요한것을인식하여야된다고한다

府邑會議員總改選 明年中에一齊執行
內務局、各道知事會議에指示

지방제도(地方制度)개혁이래세 번의 부 읍 회의원(府邑會議員)면협의원(面協議員)과교 평의원(學校評議員)등의 선거지는 현재임기만료와함께 명년사년도 중에는 전조선일재히 집행하기 로되엿는데 개선기에당하야 총 독부에서는 특히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일층그거의 만전을기하 라고 내무국에서 십구일에열린 각도지사회의에 그선 거사무에 대하야 전이회의 성적은 대개 양호하얏스나 이사무는 회수를 거듭하고 거기에 익숙해짐을따 라서 잣칫하면 어정을 경솔히 취급하고 의외의 과실을 초래 할념려가잇스므로 그법규와 사 무의 진행에 충분한지도와훈련 을 서겨서 전회보다 나흔성적 을 내도록하라는 지시가잇섯다

李王、同妃兩殿下
朝鮮神宮에御參拜

십팔일 경성에 드옵신 리왕 전하(李王殿下)와 동비전하(同妃殿下)께옵서는 십구일 오후한 시사십오분에 조선신궁에 참배 하옵시엇다

自轉車大盜

본적을 황해도 평산군금암면 룡초리(平山郡金岩面龍村里)에두 고 시내산수정(山手町)일백이십 삼번지에 거주하는 윤홍영(尹洪榮)(二一)이란자는 지난십팔일오 전에 자전거한대를 훔처다 가퇴 게원리(退溪院里)박춘옥(朴春玉) 에게 팔아먹은 사실이 발각되여 서 룡산서에 잡히엿는데 어자 는 식필과 서울을 도라단이면서 갖은수단으로 거리의 자전거를 삼십여대나 훔처서 팔아먹은것을 자백하얏다

志願兵되기를 血書로陳情

본적을 경기도 장단(長湍)에 두고 현재 공주 형무소 청주 (淸州)지소간수(看守)로 잇는 청주군대성정(淸州邑大成町)오십 구번지 김경원(金慶源)(二一)은지 난십팔일 혈서(血書)를써서 청

小賣物價依然騰勢
總督府商工課三月分調査

총독부상공과의 조사에의하면 소매물가(小賣物價)가 삼월도여 전히 등세를 계속하고잇다 삼월중 지수(指數)는 식료품 은 일백삼십일포인트(三)로서 전월 보다 일포인트는사퍼-센트의 등 귀를 보엿는데 그중제일류의쌀 보리、서숙 콩、전분、두부가튼 것은 일백삼십칠포인트일로서이 퍼-센트이 제이류의 감자고구 마 사과가튼것은 일백이십칠포 인트사로서 일퍼-센트로 등 귀하고 제삼류의 고기 계란、 우유등은 일백사십이포인트팔로 서 이퍼-센트가떠러젓고 제사류 의어류 해물은일백이십오 포인 트이로서일퍼-센트로 제오류의 사탕 소금 간장 술 고추가튼 것은 일백이십삼포인트이로서이 퍼-센트이로 모두 등귀되엿다 다음으로 의복류는 일백삼십 일포인트는팔로서 팔퍼-센트이 나 급격한 등귀를 보이고잇는 데 이것은 스테이풀파이버 혼 용실시에의하야 순면포(純綿布) 의 오름이다 견직 제품는 일백사십팔포인트이로서 삼퍼-센트 연료(燃料)는 일 백이십구포인트오로서 보합을보 이고잡품은 일백삼십사포인트오 로서 삼퍼-센트이 올랏다 그 래서 총평균은 전월에 비교하면삼퍼-센트이 빗싸진 셈이다.

阿峴小學校缺員
五六學年에各四十名

부내 아현공립심상소학교(阿峴公立尋常小學校)에서는 이번그 여자 사학년과 오학년을 남녀 복식(複式)교수로부터 여자만의 단식(單式)교수로 고치게된결과 여자 사오학년에 각각사십명식 의 자리가 비게되엿스므로 아 현소학교부근 주민의자제로서 거 리가먼 지역의 학동을 이학교 에 전학하고저하는사람은 곳 경 성부 학무과로 지원하야달라고 한다

訓練所敷地決定
陽州郡孔德里

총독부 육군병지원자 훈련소 (陸軍兵志願者訓練所)를건설할려 는 그전부터 총독부에서 물색 하고잇든바 금번경기도양주군노 해면공덕리(楊州郡蘆海面孔德里)에 잇는 총독부제생원양육부(濟生院養育部)의터에다가 교사(校舍) 숙사(宿舍)그외의 저반의시설을 하기로되고 현재공사를 준공하 기로되엿다

賭博黨檢擧

시내 죽첨정(竹添町)삼정목어

花鬪賭博

시내관동정(館洞町)사

自動車를窃取 電信柱에破壞逃走
昨夜彌生町에怪盜

지난십팔일 오후열한시경 시내 미생정(彌生町)삼번지

廣告

時局品展覽會女子看手若干名 年齡十七歲以上二十五歲까지 小學校卒業程度以上 市內에 確實한保證人을要함 希望者 는本月二十三日까지 本社庶 務部에履歷書持參할事

朝鮮日報社庶務部

昔日의大盜
不審訊問中에露顯

십팔일오후 여덟시경에 서내 룡산서 평전(平田)형사가 순시 중 룡산소학교아페 다다럿슬때 에 거동이수상한 삼십세가량되 여보이는 넉마장수가 잇슴으로 불심심문을하엿더니 이자는별안간 도망하여버림으로 추격하여 체 포하고 취조한결과 의외로 이 자는 전과일범의 시내도화정(桃花町)사십육번지사는 이석근(李奭根)(二七)이란자로 이자는『비밀 이나 헌신문팔것업소?』웨치며 경성시내를 도라다니다가 빈집 만잇스면 침입하여서 귀금속、 의복가구등 사오백원어치를절취 하여 팔아먹은것을 자백하엿다 고한다 그리고이자는 소화십일 년에도 판사만을전문으로 침입 하여 오천여원어치를 절취해먹 고 일년육개월간의 복역을하고 나온대적이라고한다

配達夫의脫線 豪遊中에摘發

『삐-루』로정종(正宗)사먹다경 찰에 붓들린이야기-부내황금정 (黃金町)사정목이백구번지서정규 (徐廷奎)상점에서 일을보는 송명 길(宋明吉)(二〇)은십팔일 정오경 『삐-루』삼십타(打)를 주문이

貞陵山土幕民들 李氏美擧에感謝

지난십칠일 일요의 교외산책을 나가던 이종만(李鍾萬)씨는 정릉산(貞陵山)에 새로 이주해 오는토막민의 생활상태를보고 이 토막민들을 보호하는 화광교원(和光敎園)사무실에 토막의 어린애 들시켜서 현금오십원을 보냇스 므로 토막민들은 감사함을 마 지안는다고한다

傳染病患者死亡率 都市보다郡部優勢
昨年中의總督府衛生課統計

소화십이년중의 전조선전염병 (傳染病)환자는 그총수가 이천 칠백십구인인데 이것을 전년에 비교하면 오백사십이인의 감소 를보인다 그환자를 각도시 인 구일만에 대하야 그환자수가가 장만흔 순서로 열기하면 다음 과갓다

平壤	八二二	四五、〇一
釜山	七五〇	三六、三四
新義州	一七四	三四、一八
鎭南浦	一五二	三一、一九
元山	一六八	二七、二〇
京城	一、八二七	二六、九八
大邱	二五〇	二三、〇九
仁川	二三三	二三、二三
全州	九〇	二一、九九
群山	八八	二〇、八九
羅津	四八	二〇、二六
馬山	六二	一九、九九
大田	七一	一九、一一
光州	一〇七	一八、九六
咸興	九四	一七、三〇
開城	九五	一七、一二
淸津	九一	一六、〇六
木浦	四三	七、一七

그리고 환자를 도시와 군부별 (郡部別)로 나누어 비교하면도 시는 인구만명에 대하야 십사 인이더되고 군부는 인구만명에 대하야 오인미만이된다 즉도시 에는 군부에비하야 그환자수에 잇서서 이배반가량이나된다 그리고 동년중의 사망자수를 보건대 총수 팔백칠십사인중적 리(赤痢)로 사망한자가 삼백팔 인이어 최고를점하고 다음 장질 부사 이백삼십구인 디프테리어 백삼십사인 류행성뇌척수막염 오 십삼인 유창십인 발진디부스구 인 파라디부스사인 호열자일인 의 순서로되여잇다 도환자에대한 사망자의 비례 를 도시와군부를 비교하야본나 면 도시는 환자백명에 대하야 십칠인가량되고 군부는 환자백 명에대하야 십구인이넘는데 이 것은 군부에 의료기관이 부족 한데기인하는다한다

夜櫻期間中에 防空映畫上映
道에서一般에公開

경기도에서는 부민에게 방공 (防空)지식을 철저히 인식식히 기위하야 십구일밤부터 시작되 는 창경원(昌慶苑)의 야앵(夜櫻)기간중 동물원(動物苑)광장 에서 방공영화『공중의생명선』을상영 하야 일반에 공개키로되엿다한 다

北漢山丸竣工 道水産試驗船
昨日仁川에廻港

경기도에서 도내수산업적극 적으로 지도장려키위하야 작년 사월에 공비십삼만원을 드리여 대판상원조선소(大阪上原造船所) 에 청부건조시키든 수산원양시 험선(水産遠洋試驗船) 북한산환 (北漢山丸)(七四톤)은 얼마전에 준공되야 십팔일 오전열한시에 인천항에 회항되엿는데 · 준공식 은 오는오월상순에 거행할터이 라한다

金堤櫻花滿開

【金堤】김제(金堤)의 명화는유 달리아름답다 김제성산 공원에 는십오일에 벚서만개라 칭송한 실내에서 동작하는 시민은나뭇 한초록에 갓후한단장으로 손에 손을 이끌고 작반하야 꼿구경 군이 놀고 나리어 연락부절이 라한다

訓練所建設에 節約獻金

트럭·電車衝突

放蕩한兄을 동생이刺殺
咸興府內悖倫慘劇

不淨窃盜捕盡
犯行件數가十餘件

京城興行協會 報國週間行事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 강 조주간실시를 기회로 경성흥행 협회급 영화배급조합에서는 이 취지에 순응하려고·명치

東亞 참기름 開城西本町 東亞製油所

今夜의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 하모니 카獨奏▲六時二五分 어린이新 聞▲六時三〇分 講演 李源喆 ▲七時三〇分 講演 元應常▲八 時 京畿立唱 金順紅 金蘭香 ▲八時三〇分 音律▲九時 라 디오드라마

第二放送 ▲午後六時(仙)童 話▲六時二五分(城) 講演▲七 時三〇分(大) 歌謠▲七時四〇 分(天津) 講演 ▲八時一五分 (城)合唱▲八時五〇分(東)小說

色鉛筆

대마대기 하나둘의지 롤삼고 누더이를 걸 머지고 창닙 거지 하나가 서울장안에도 종로네거리 한복판、 전차、자동차、마차、 자전거가 얽킨 가운 데를어섯다 ◀보건대어 느시골로 둘아다니다 가비록아픈 보지못한다 해드때 가 따뜻한 양춘가절이니 서울 이나 한번 가보자하고 온모양 갓다 ◀밤은 어데서자고 아침 은어데서 먹엇는지 가기는 또 어데로 가는지 대막 대기를 더드므며 걸어 나오게이 종로 네거리 알고와던 모르고와던서 울장안에도 한복판에 차자들기 는 잘차저 들엇건만 ◀전후좌 우로 달리며 귓밋을 흔들어내 는 전차 자동차 소리에 귀를 가르고 오도 가도 못하고 멍 하니 서엇섯다 ◀꼬-스를은 본 래 일바이니고 어데 치우지나 안혓스면 요행인데...... 그러면 이장님은 또 어데로가나?

天氣豫報

概況 優勢한 低氣壓이 西比利亞東部를 東進하고잇고, 黃河下流及 山東半島에는 弱한 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臺古及 小笠原島附近의 海上에 퍼지고잇다 滿洲는 개이고 朝鮮은 薄雲、內地는大槪 天氣 가조흐나 地方에따러 흐린곳 도잇다

豫報 오늘밤과來日은흐린다

昨日最高	二二度一	
同朝最低	八度五	
今朝最低	八度五	
今日正午	二三度六	

喘息·神經痛과 中風·高血壓
原因부터治療하는 今津博士의새로운療法
不治아니다

(研究中의今津博士)

여러가지 實驗을거처 ... 浄血劑

今津研究所 마시고 大阪市此花區梅香町

少年 サンエッチ H.H.H. 靴クリーム
靴を丈夫にする
단十錢

夏服豫約開始
四月二十日 부터 五月二十日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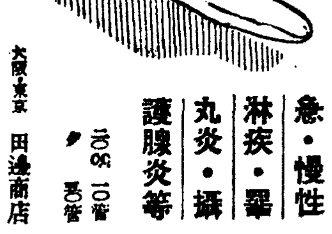
純毛服 最後の 御奉仕

セビロ 上下 特 48.00 A 43.00 B 38.00 C 33.00

別誂 實用服 26.50 均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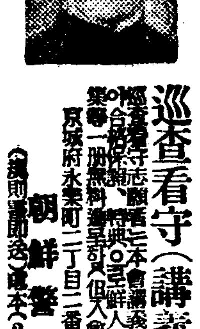
丁子屋

百日咳에 コデス(고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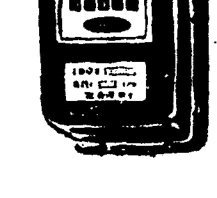
淋疾에!

오줌누는데 疼痛、排膿等의自覺症狀이 速히消失하는것은本劑의最大特徵이다
急·慢性 淋疾·痳 丸炎·擴 護腺炎等
大阪·東京 田邊商店
ネオカルゴノーゲン(네오가르고노겐)

尹膏藥(윤고약)
手術안코도惡性腫毒과 骨髓에거피든어렵고 오래된瘡毒을잘낫게함
大阪用 普通用
京城府長橋町八 慈祥局

開業紀念
自四月二十日 至三十日(十一日間)
景品附大賣出
元山和信連鎖店

문풍병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大福堂本店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京城支店
東京日本勸業銀行構內
一等三千圓附 推奬債券
證券擔保簡易貸付
利息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十八番地
振替京城二九七·電話本局四五四

トウランプ

消費節約 메-터-를보라 トウランプ의 經濟됨을 못안다
景品 春季特賣中
齒磨 トウランプ·石鹼 トウランプ

라이온치마
總當選
大懸賞
이런굉장한大賞品이기
다리니곳應募하시오!
壹等
(1) 美術置時計
(2) 最新式(미제트小型)寫眞機
(3) 高級空氣銃
(4) 크로무側腕時計
(5) 無線受信機(라듸오셋트)
十二名
貳等 萬年筆과(샤푸펜슬셋트) 四十名
參等 優美箱子入手巾 一百名
四等 스타-(싸인스테무)鉛筆(打半) 六百名
等外 라이온치마분(試用封) 殘全部
(但應募者 十萬名單位)
懸賞課題
어느家庭을勿論하고朝夕으로반드시使用하는物件中、虫齒豫防에第一有効한것이무엇입니가 左記○票를한곳에適當한文字를記入하시오
ラ○オン齒磨 又는 라○온치마분
應募規定
一、應募用紙 虫齒를豫防하는가장優秀한齒磨、다음五種中어느것에나 서주십시오
◎라이온煉齒磨(家庭用大形·中形·小形)의外函의後面
◎라이온齒磨粉(特大袋·大袋)의上部를四分之一로分하야 그것을 葉書大의紙面에貼付한後面
◎潤製 라이온齒磨 의帶封을떼여 그것을葉書大의紙面에貼付한後面
◎라이온齒刷子(一號形·二號形·三號形) 外箱後面
◎라이온齒磨木(一號袋·二號袋)의外裝紙
一、答案쓰는法
應募用紙에다음의四條件을 알기쉽게쓰시오
一、課題의解答 三、希望하시는一等賞品中한가지
二、住所와姓名 四、廣告를보신新聞紙名
一、送付方法
物件을사신販賣店에付託하시면 送料도물지않고便利합니다。或은直接郵便으로보내도좋읍니다。數가많으면 小包로도關係없으나 送料가不足되면받지않읍니다。
一、보내는곳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日華ビル內 라이온齒磨朝鮮駐在所懸賞係
一、締切 七月二十日
一、抽籤方法 八月上旬、所轄署員立會下에 嚴正하게抽籤함。一等은正解者만을希望別로抽選하고、二等以下는一等에서當選되지않은것을合하야順次로抽籤함。
一、當籤發表 九月中旬、主要한新聞紙에一等、二等、三等의當選者만發表하고、其外는賞品發送으로通知함。
라이온치마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LION DENTAL CREAM
KOBAYASHI
TRADE MARK
AN IDEAL PREPARATION FOR THE HYGIENIC CLEANSING OF TEETH GUMS AND MOUTH MADE OF SCIENTIFICALLY SELECTED MATERIALS
潤製
ライオン歯磨
株式會社 小林商店
MADE IN JAPAN
潤製
C—12
002955

家庭

그저 배아푸다하지만 아푼것도 여러종류
◇염ㅅ증성과비염ㅅ증성과의구별
무슨병인지짐작도선다

원래 『아푼것』이란것은 조물주가 생물 특히 사람에게주는 경고입니다 『아푼것』에 혼이나서 사람들은 조심하게되고 병을막을라고 합니다 그것은 방공 연습때의 『공습』을고하는 차이렌소리와 가튼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푼것』은 자연이 우리에게주은 충의하나입니다 우리들은이 『아푼것』에 감사하지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상의것을전제로하고 위장의 『아푼것』을말해보십시다 대체 배가아푸다고하면 몬저위(胃)가아푼것으로 역이는수가만습니다만 위의부분이 아푸다고해서 위통으로 속단하는것은잘못입니다

배아푼것을 이르키는 부분으로첫재는 위십이지장 둘재로담낭(膽囊)셋재로 맹장이외에 소장대장의 유착부(癒着部)와대장곡부(大腸曲部)등입니다

그러면 이러곳에서 이러나는 고장을 대별하면 염증성(炎症性)과 비염증성(非炎症性)두가지입니다 이고장에따라 인체는이화(異和)를 깨닷게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병감(病感)이라고하는데 『아푼것』도 그속에들게됩니다

염ㅅ증성의 아푼것이라는것은 종기에 다어서 아푼것인데 위가 약간부으면 위가다루가되고 위가 몹시부어헐면 위궤양(胃潰瘍)이되고 더나아가 위의주위염(胃周圍炎)을 이르킵니다 위가 부어 허러살이죽드나오게되면 그것은 위종양(胃腫瘍)으로 변하게됩니다

이외가튼 상태가 담낭(膽囊)이나 맹장부에오면 담석증(膽石症)이라고해서 모래가 생기는병이되고 맹장에는 맹장염이나맹장주위염(盲腸周圍炎)이나 충양수염(蟲樣垂炎)을이르킵니다. 맹장에 구멍이나면대단히위험한 급성범발성복막염(急性汎發性腹膜炎)이 됩니다. 대장가다루(大腸加答兒)도 또한 위가다루와가티 염증성의병입니다.

비염증성의 아푼것은 소위땡기는것처럼아푼것입니다 이것을 견인통(牽引痛)이라고하는데 비염증성아푼것은 염증성것이한병되지안으면 열이나지안코 아품니다 『胃아토니-』라는 이름미테 틀팝되여잇는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이며 위하수(胃下垂)위확장(胃擴張)이며협착성(狹窄性)의질환 말하자면 위괴양흑은 장폐색(腸閉塞)가튼것이 모두비염증성의 병이며 병기는것처럼아푼증세가 잇습니다. 암종(癌腫)도 역시 열이업시 경과하는일종의 비염증성입니다

이상과가튼 염증성 또는비염증성의 위장질환은 모두 복통을 이르킵니다. 아푼것이 급격하게 강하게오면 대개 위근처가 아푼것이생각납니다. 이때에 의사를 불러대면 의례 위경련(胃痙攣)이라고말합니다. 그러므로 위경련이라는것은 위, 십이지장부에오는 경련성격통이라는 의미이지만 그중에는 다른 원인으로부터오는 여러가지 『아푼것』이 포함되어잇습니다 따라서 위경련이 정말로 위의경련으로부터 온것인지 아닌지다른 부분으로부터 반사적으로온것이 아닌지를 정확히알지안어서는안됩니다

병에따라 『아푼것』이 여러가지로다르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겟습니다.

▼위가다루 위가다루는상가다루와 비젓하지만 쌀쌀아푼편입니다. 마치 감기로 목구멍이 아푼것과 비슷합니다 …

▼위산과다증 위산과다증으로 아푼것은 위궤양으로 아푼것과 비슷하게 간이라면 압파습니다 식후한시간으로부터 두세시간에 오는것입니다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으로 아푼것은 십이지장궤양과비슷해서 식후 네시간으로부터 여섯시간에오는 말하자면 공복시에오는 아품입니다 무엇을먹거나 『알카리』제를 먹으면 아푼것이 곳낫습니다

▼위피양 … 아픔니다 위에이상하게 부식하위가 몸에먹은것처럼아픔니다

▼담석증 … 도 더이상해서 화차 … 습니다 진땀을흘리고 추녀사배하면서 앞습니다 대개는 오한이나고 몹시 열이나면서아픔니다

▼맹장염 맹장염(盲腸炎)의 아픈것은 처음에는 위가아푸고 계속해서 배전체가 아푸고 최후에는 맹장만이 아푸게됩니다. 이것은 산부의진통과가티 몹시다기드시 아펏다 덜햇다합니다.

▼급성대장가다루

뒤가 마렵은드시 아푼것인데 이것은 애나올때에 아푼것과비젓합니다 설사와 구토를하며아플니다.

▼착공성복막염

배에 구멍이 뚤린것처럼 아푼데 병자는 그동시 아푼것은 깨다를시간까지 지시를합니다. 계속해서 열이나고 토하고하는데이때에 의심이나거든 내과의사와의론해서 외과의 사를 부르도록 해야됩니다. 아푼것은 사람에따라 천차만별이니까 아푼부분의위치 성질전후증상을 세심히주의해서 처치를해야만합니다

영국서환영받는 미국서맨든구두

요즘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만든 여자구두를 만히 사드리고십흔데 나라에서 수입세를 적게 바더달라는 운동이 일어낫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만든 구두는 넘우발족해서 발이아퍼서 죽을지경이라는것입니다 그러고발이 아플뿐아니라 발가락이 가운데것만 그양잇고 양편쪽에것은 아조못쓰게되어 발이병신이되고만답니다

그러면 미국서 만든 구두는 그러치가안코 제맘대로 넓적하게도만들고 여러가지로 발이편함으로 영국부인들은 미국구두를신것스니 수입세금을 내려달라고했습니다 딴은그럴듯한 일이군요

여자구두뒤축은 얼마나노푸면될까

요즘 구두신는 분들은 대개가 굽높은구두소위『하이힐』이라는걸 신습니다. 사람에따라 조화하는게 다른지만 구두를 신을바엔 멋지한것보다 하이힐이 썩 맵씨가잇습니다.

그런데 웨이런말이 더러잇지안어요? 구두뒤축이 넘우높은것을신으면『에기집』에 해롭다진다는둥 이담에 시집을 가도 애기를 못낫는다는둥 하지안습니까.

그러나 그런건 다 쓸데업는 말이고 하이힐을 신으면 첫재 거름이 잘걸리고 둘재 발맵시가 조와지고 셋재발이 압호지안코 아주 조타는것입니다.

그런데 어하이힐에도 웬만큼 놉흔것이라야 하지 넘우뒤축만 뾰족하고 발또히는바닥은 밧작적게지은것은 되려 조치못합니다.

그러면 가장적당한 것이는얼마나하면 유센치반으로부터 칠센치까지의 소위『하이힐』종류외드는 구두는 십오도내지 십팔도의각도가 제일조코의에죄어부인이나 놀이를하는 사람은 뒤축이 약십도가량 페두러지는것이조습니다. 요컨 유행하는하이힐은 넘우놉고 뾰죽해서도리어언짠습니다.

우리차지

누가 원가

『언니생일은 사월초이튼날
내생일은 어월열하롯날
내가 먼저낫는데 엇재서 나를 나중낫다고할까』
『생일은 위지만 나이를 덜먹엇지』
『그럼 어머니한테 좀 달래먹겟다』

(京城사람 도영준)

長篇小說 愚氓 【12】

朴泰遠 作
洪祐伯 畵

溫泉場小景(八)

『선님 그저 안자우?』

강씨는 이번에 옳꾸로하고 정요히첨 멋처카락 집어먹은것이 또 땡이 낫는지 쌩을 아프기 시작한 배를 손으로 슬어만지며 어둠속에서 연자되를 좋아보고 말을 건넨다.

『응 왜?』

『아이니 그저……』 요센 그래 지내시기 으떠우?』

『나야 벌낫 그런치』

『그래두 얘길 들으면 편이를 크게 버러저서 벌리가 실업서 펜찬타는데?』

『펜찬흘게 어데서? 마평(麻雀) 노릇 못치가지구 먼돈때먹는게 생기면 그래 올마나 생기누? 정말 펜찬타면 내가이러케 신청얼 올리구?……』

『그래두 오기만 허면 돈이암만이면 생기나, 선님 재주두 하는것을

『참, 토정비결 가젓지?』

『응……웨, 선님 볼랴?』

『이더 난 올핸가 보까?』

영옥은 어데나서 점쟁을 켜고

『선님이 무슨 해지?』

『갑술(甲戌)생게 해에 게 삐』

『갑아지?』

영옥은 머리마러 자빠기를 집어덥고 벌떡 벌떡 마셧다. 술은 다 깨고 잠은 줄지업해서 앞을 모양이고―그래 여편신수가 어떠한지 화수하고 연애가 원만이 서럽이 벌지 어데 토정비결이나 좀 보자는것이.

머리마러다가 토정비결과 책력에다 연필 조이까지 갓다노코 영옥은 다시 이불을 쓰고 자리에 엎드려서

『당연 신수 보든 버어링 문저 연필을 노코 또 레세수를 노코……』

『여간은 아니요…… 오늘은 준지부처 됏스니 그럼 내일이나 올으루 가보겟군。』

『글세…… 가봐두 조쿠 안가봐두 조쿠…… 전에는 조화두 지냇지만 어젠 괴차에별 생각 업스면서 그저 전일의 정의면 가자구 처자 엿는냥 저한테 돈 팔어가는거생각해보면 나두 고약한 년이야 언제까지 내가 이러다 죽누?……필련 뭐니 뭐니 해두 야우님이 상팔자 전』

『아이 참 할루 마우 남의소설루 거를 못괴구 지내며 일년신세유신일을 흘뿐이 알든하 흘이 못보든 년의 팔자가 그래 상팔자유?』

『그래두 영감을 잘만나 오쥔애와 사다시피허구……』

『오쥔에 와 술먼 웨이유? 백이 나야지……돈천이결을보면 아무렇두 내년엔 고해를 임게 됐』

『아이 술먼 소리두 허네 쾌가 어떠케 나왓거그래?』

『글세 바다에 나가서 토끼를 잡구 정작 고기는 산에가서 구허더나? 분수밧게일을 허저 말라구 남에게 일수만진다는군. 그래 선님, 내가 분수밧게일을 허게 뭐유?…… 도무지 공이구 뭐만 끈허더니 그게 꼭 죽엇수지 뭐유?』

『아이 죽긴 웨 자꾸 죽는데 애?』

그러다가 영옥은 갑작이 생각난듯이

『선님 이리 내우. 내 봐드리께……』

강씨가 책을 빼아서

『선님 내년에 다섯이 되나? 여섯이 되나?』

하는것을 영옥은 거어 붙잡어으로『수-』하고 제지하면, 화수반편으로 귀를 기우렷본다. 그러나, 그편에서는 아모소리도 들려오지 안는다. 생각하여 보면, 그까짓 나이 뭇해보다든. 정에다 마켓반을 벌리노코 노름을 부친느니, 처자 잇는 남자에게 돈 팔을 하려 왓는니……하은 사나이가 들으면, 조화 안할 말만 여태 하고잇섯던것이나.

(문업, 상이 들어 좋으계지 장어 들어도 기괴 들엇겟지……)

『다섯은 뭐 다섯, 저금 셋이니까, 명년에 넷이지。』

하고, 영옥은 그제야 강씨를 향하여, 그래도 역시 얼마쯤 나즌 음성으로,

하고 일러주엇다.

그러나 화수가 자고 잇슬리니 하고 명옥이 생각한것은 올치 안헛다. 그는 오지 안는 잠을 애써 청하려들지안코, 아까부터 자리에 바루 누어, 벽넘어로 들려오는대로 엿방 여자들의 이야기를 듯고잇섯다. 그러나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는 안헛다. 다만, 자기와는 좀 다른 의미로, 그들 역시 가엽슨 사람이로구나―생각하는 어다.

婦人良藥

喜谷實母散

어머님은 날마다キダニ를 잡수시기때문에 아주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한애기에·强健한母體!!

喜谷實母散은 血液의循環을 조케해서婦人病과厥冷을除去하야婦人의體質을强健케합니다

——主効——

產前產後 四季感冒 足腰厥冷 惡阻 月經不順 脚氣浮腫 經期腹痛 流產早產 帶下 頭痛眩氣 子宮病 히스테리ㅣ

定價

一日分	二十錢
三日分	五十錢
七日分	一圓十錢
十四日分	二圓十錢
廿一日分	三圓五十錢

產前產後에

姙產婦의能力을强化하고 產後의衰弱을回復시켜줌니다

喜谷實母散은姙產婦의微妙한生理의變動에 適應하야서姙產婦에 따르는諸病과婦人病的疾患을治療하고母體를保護하야 胎兒의發育을助長케하며早產流產을豫防하고安產으로引導하는等그優秀한藥効는三百年의實驗이分明히證明하고잇습니다

東京京橋區京橋一丁目 喜谷市郎右衛門商店

女性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行發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戀愛와結婚은別것인가

▲戀愛와結婚은아주 달은두幕의演劇……柳致眞
▲結婚은戀愛의結實이 기를밋는다……尹聖相
▲戀愛와結婚은斷然別個이다……咸大勳
▲戀愛와結婚은境界업는두個의感情……朴仁浩

◎蜀女馬頭娘(靈神奇話)……車相瓚
◎靑虹의祭(烈女美談)……申鼎言

詩 남어지한밤……乙巴素
女 人……崔璟涉
歌 당신엽플안줄때는……李時雨

▲珍聞奇聞 ▲當世常識
▲主婦備忘帖
▲海外消息 ▲女性界消息

詩畫報
폭풍우의집(文)毛允淑(畵)鄭玄雄
내가이러케외면하고(文)白石(畵)金奎澤
春 耕(文)朱壽元(畵)崔根培

畵報
▲柳綠 ▲開綻
▲靑春의躍動
▲귀잡기를
▲이른 아양
▲일고나서
▲나서드리

創作

中篇小說 世紀의花紋 金南天(鄭玄雄畵)
短篇小說 聖 牌 쭈-리소아·코메作 李泰煥譯(崔根培畵)
短篇小說 『케이트』의젊은未亡人 李石薰(鄭玄雄畵)

小說家 姜敬愛論 白鐵

隨 봄은왓것만……兪鎭午
筆 만물긋ㅅ……金煥泰
春宵一話 李軒求

呂運亨氏家庭風景 記者

醫學上으로본시어머니와며누리……鄭潤鎔

思春期의医学的智識 金錫煥

나는왜独身生活을하고잇나

▲老總角과佛蘭西人形……金文輯
▲處女와深夜의레코―드……金壽任

表紙挿畫 鄭玄雄
挿畫 金奎澤
挿畫 崔根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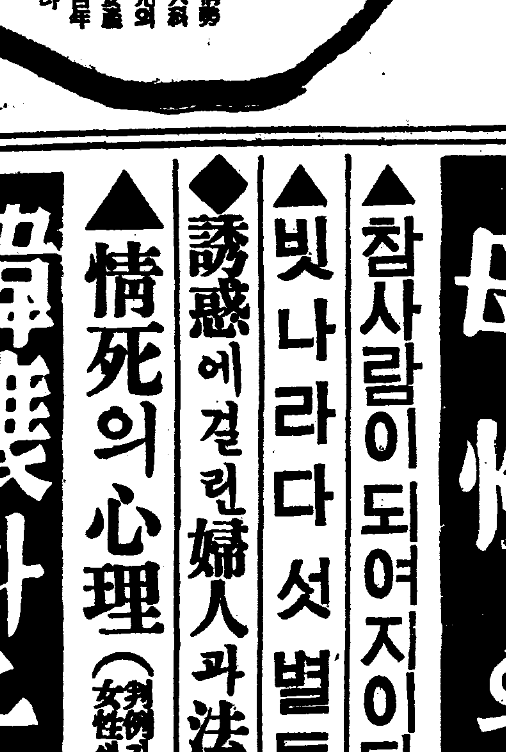
◆스레이불·파이버란무엇 A記者
◆家庭婦人들의돈기르는법 C記者

家庭讀本	
乳兒人工營養法	李金田
알어둘家庭染色法	裵祥明
初夏洋料理製法	劉福德
最近化粧業打診	C記者

母性의祈願

▲참사람이되여지이다……車士百
▲빗나라다섯별들……崔善福
◆誘惑에걸린婦人과法律의救濟……張承斗
▲情死의心理(判例가드러내는女性에라메스크)……金汝植

韓孃과米人의新婚家庭突擊記 R記者



丁令威傳說과 回軍의 威化島

黃義敦

威化島

오늘은 四月五日이다 午前九時에 朴支局長과 가티 義州城內로부터 約二十里바 鴨綠江中에잇는 올해섬(威化島)을 찾게되엿섯다。 그는 곳義州郡 威化面으로서 『有鳥有鳥丁零威。去家千年今始歸』라하던 丁零威의 傳說로부터 이 잇던곳이다。支那에서에 로부터 遼東에 살던 丁零威란 사람이 神仙이 되야 가지 千年만에 鶴으로 化現하야 그의 故鄕에 다시 도라와 華表柱에 안저 울엇다하는 傳說이 잇서오던바 로서 그後에 올해섬을 威化島라 稱謂함에 그가遼東에 갓섭고 도한이름에 丁零威란『威』字가 들엇스므로 다시 丁零威의 傳說을 끄러다가 이威化島에 부쳣던것이다 그래서 朝鮮朝에 써보진 往事에도 『鶴歸千年華表柱』이라한詩句가 잇게 되것이。

만은 威化島의 이름이 世上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그보다도 李太祖의 回軍한事實이잇슨後로부터이다。高句麗가 敗하고 渤海가 亡한 後로부터 우리의 故鄕인 滿洲의 曠野를 남의손에 너코 鴨綠江以東으로 움우러지게된 高麗人은 엇지하면 다시『東明故疆』을차저볼가함이 高句麗七十餘年崇敬에 一貫하야온精神이엇다。그래서 高麗太祖의 『國號高麗』도 『西京遷都』의 經營도그 計畫으로부터 되엿바요 光宗의 北進主義도 成宗의 西征開拓도 그精神에서 나왓던것이오 姜邯贊의 戰勝이며 徐熙의抗辯이다 그의一部的表現이다 그래서 그理想을 完全히 實現치는 못하얏슬지라도 때때로 機會가잇슬제마다 그精神이 表現되야왓섯다。흐르고 흐르든그精神은 高麗末期에 唯一한偉人 崔瑩將軍에게와서 正말로 事實化하게 되얏섯다。崔瑩將軍의 平生計畫인 北征事業도 두번세번 失敗한남어지에 最後의經營으로 高麗의 準備를다하야 禑王十四年(西紀一三八八年)五月에야 全國大兵을 總動員시키고 禑王을 모서 平壤에 進駐하야 自己는 八道都統使가되고 李成桂(太祖)를 副元帥로 左右軍都統使를시켜서 全軍을거나리고 鴨綠江을건너 遼東(今南滿洲)을 遠征케 하얏던바이다。

鄕土文化를차저서(30) 第二班 義州

만은 李命의 興□을 엿고 威化島에 駐屯하얏던 李太祖는이 軍가 回軍의 吉□을 □□ 化가되야 □□가업고 上官을 □□하를 알리쳐고 『回軍의 主戰으로 因하야 全軍이이러한 苦境에빠젓다』 □□傳□하면서 □□□□ 위서 갓치回軍하야 上陸하자 마침 洪水의 몰人젹이 威化島를 더퍼 나가게되니 자칫드젓더면 水中에 □□될번하던 全軍이 더욱李太祖를 □□하게되엇다한다。

그래서 그로부터 回軍한 軍隊를 모라 平壤과 開城을 이어 陷落하고 崔瑩을 자버죽이며 禑王을 쪼차내인後政權과 兵權을 한손에 잡어서 맛친내 化家爲國에 成功하엿던것이다。

威化島는 이러한關係가잇던 곳이다 그럼으로 그자리에 『回興祠』라는 祠堂이잇서 每年七月十六日이면 李太祖의 記念祭를 지낸다한다。

(寫眞은 回興祠)

學芸

現代哲學의 諸問題 (一)

―紙上綜合大學―

朴鍾鴻

勿論 우리의게잇서서 直接問題인것은 人間의歷史的인것이오人間을떠난現實이란 想像키도 거북한일이다 그러기에果然 從來의歷史問題의探究는 大部分이人間의歷史、社會的存在로서의人間의 모든變轉이時히 問題의焦點이 되여왓다 더욱 人間存在解明의 方途如何가곳 全存在把握의方向을左右함은 贅言조차 要치아니할것이오 따라서 人間學이 마치哲學으로서의 通路와가티 看做되여온것도 事實이다그러나 通路는 어대까지라도 通路일뿐이오 決코 哲學의全貌인것은 아니다。存在論展開의 한契機는 될망정 哲學의全面的要求가 그대로곳 滿足된것은아니다。過去에對한 破壞的批判뿐을일삼을것이아니라 歷史的社會的으로做出된 우리의現段階的立場에서 勇敢한새建設도 잇서야할때가아닐까。通路에서만 머무저릴것이아니라 새로展開된 地盤우에 새로운世界觀을樹立하는것이 또한緊重한問題인듯십다。이러한點으로보아 今日의人間學的成果와 自然辯證法이 實로어떠케關聯될것인가 極히 困難한問題인同時에 이問題야말로 存在를 存在自體에서맛고저하는『第一哲學』으로서의 存在論의 本道로 도라가는所以가되는것이라고 생각한다。自然辨證法이 더一層 哲學의 中心問題領域안으로 드러와야할時期가 當到한것이나 아닐까。여기에는 量으로부러생기는 質的飛躍을 곳人間的主觀의 神秘로운 才操로 簡單하게 措處함을 容納치못할것이다。主體와 客體와의 矛盾的統一로써 歷史的現實이 展開되고잇슴은 事實이라할지라도 人類가생기기以前의 自然史까지도 包括한 一個全體的理法을 哲學이要求한다면 거기에對하야 어떠한解答을 우리는가지고잇는가 歷史的世界의 自己限定이라는커다란 系列의途中에서 即 世界自體의 自己矛盾으로 부터 人間이생겨나고 意識이 생겨낫다고 할것인가、同時에 全體的으로보아 마치 歷史的 世界에잇서서의 即自的인것을 主體的인것이라하고 對自的인것을 客體的인것이라고 이를할것인가。그러나 그러한理論은 汎神論的인 커다란前提가 暗暗裡에 無條件하고 默認되는限에잇서서만 비로소容許될 性質의것임즉도하다。이와近似한 冒險은 今日의哲學이 物理學上의 새로운業績을 너무나性急하게 我田引水格으로 輸入하려고 서두를때에도 犯하기쉬운 誘惑의하나다。相互排他的인 粒子와波動이 其實인즉 各其他者를豫想하며 補足하는關係에잇기때문에 粒子나 波動의 그어느 一方만을 孤立시켜서 取扱함은 到底히 不可能한抽象的態度요 兩者의 排他的相補性을 通하야서만 自然의 全貌가나타난다고하여서 마치 粒子와波動의兩者가곳 主體와客體의關係를 지니고잇는것가티 지나처速斷함은 不當한 比論的飛躍이 아닐수업다。

漢詩募集

題 梨花

押 香

限 四月二十五日

新刊紹介

◆更生 四月號 發行所 廣島縣京崎町日本赤十字社廣島支部 更生社 振替大阪七七五三一番 定價十五錢

◆調査月報 三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 定價三十錢 一手賣捌所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〇番

移民部落見聞記 (十)

―로…포…르…타…ー…쥬―

李泰俊

『농작물은 대개 어떤겁니까』

『베、조、수수、모밀、콩、옥수수、감자 대개 그런것과 채소지오』

『여기 와 지내는분들은 생활정도가 평균한니까?』

『꼭 갓다군 할수 업습니다 이장자워는 만보산사건 일이난후로 벌써 여러해 아닙니까 아마 이민부락으론 끝은 이래두 기중 자리잡힌 편인가봅니다。그리게 시찰단이 오면 혼히 이동네로 다리고오드군요』

『이동넨 다 자작농입니까?』

『자작농은 별로 업습니다 모다 만인의땅을 차입해가지고 하니까 결국 소작 셈이죠 애초에 이 만보산에 드러온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구 황지차입운동(荒地借入運動)을한겁니다』

『네 자세좀 말슴해주십시오』

『호(胡)가란 여기 사람을 구문을 주구 내세서 시경잇는 만주인부호의 땅을 오백상(五百晌、一晌二千坪)지길 차입한겁니다 그때게약편게는 지금 다이것습니다만……』

『네』

『이근방에 사는만주인 토민들이 들구 일어낫니다그려』

『왜요?』

『조선사람이 와논을 풀어노면 저이 밧들이 결단난다구 들구일어낫습니다』

『왜 그사람네밧이 결단납니까』

『오시면서 보섯지만 여긴 벌판이 모두 상관방 갓지안어요?그러니까 논에서 나오는 물이 빼질테가 업습니다 저가구푼대루 사방으로 흐리지니까 그여메잇는 밧들이야사실 결단이조』

『그럼 그사람네두 밧을 논으루 풀면좋조와요?』

『그사람넨수조할줄을 모릅니다그리구 무슨 사람들이 이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답니다그려 그리구 베농삿저논는대야 베를 어디 갓다 팔아야 할지두 모르구요…그저 답답이저이먹울것 저이바레서 소출시키는걸 기중 안전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요?반대운농이 어떠케됏나요?』

『그사람네들도 사실우리가 널비가 이십여처이나 되는 큰 수돌내니까 단단히 서두르드군요 여러백명이 판청으로답려것습니다。조선사람때문에저이가 못살게된다니까 판청선 개간권을 허가해주고도 무책임하게 모헌다고 내던니다그려 백성들은 조선사람한테 양식두 안팔조 우물로 못쓰게허조 그때생각을하면……참 국 우리두 사생결단으루 차울수밧게업섯습니다 아 가지온양식 가저온것천는 다그땅 차입하는운동과 봇도랑에 집어너 봇도랑이 거이거이 완성돼가는데 가라니 어딜갑니까? 갈노자도업고 가서농사준비할 미천이잇서야조? 그걸물어주다고하더라도 이십리나되는 봇도랑을내게 우리가 차 그저 어디로가랍구 내댓니다그려 드린돌은 우리가 파논봇도랑을 군데군데서 작구멩군니다그려 그러면 우린 또파려가 그들을 죽일드시으르대구 또파냅니다그려 말이 우습지참 사생결단하는 쌈이더랫습니다 우린 밤에도맛습니다 나중엔 토민들이 다시 판청으로가 야단을쳐 결국은 조선군대가나와총을 막 쏘게됏습니다 머리우루 총알이 찡ー찡 지나가지만 우린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죽긴마찬가지라 그냥 도랑속에섯구만 파냇드렷습니다』

하고 주인은 그때광경이 눈속에새로운듯 땀업는 이마를 멧번문지르나다。

學芸消息

東京에 留學中인 美術學生들은 展覽會를 열고저 數年前부터計畫中이엇는데 이제모든準備가 끗낫스므로 오는四月二十三日부터 二十七日까지 五日間 府內鐘路和信七層갤러리ー에서開催키로 되엿다한다。

一身上眞理와「모랄」

―『自己』의省察과『概念』의主體化―

③ 金南天

常識的으로 道德이라는 觀念을規定할때에 우리가 귀이히드른바는 그것이 善惡을 判斷하는固定不變의 德目이나 道德律을 가르치는

概念

으로써이엇다。修身以來 우리는恒常事物을 善惡에 依하야 判斷하는 道德主義를 갓고잇다。그러나 이곳에서 文學的觀念으로써 道德 或은『모랄』이란말이使用될때엔 이러한 通俗的觀念으로化한 道德主義가 聯想되어서는 아니된다。萬一文學이道德을 對象으로한다든가 또는어떤文學에『모랄』이 잇다든가하는것을 이文學은 善하다든가 惡하다든가하는 意味로 解得해버린다면 이以上 더고약스런 功利主義는 업슬것이요 이보다더 卑하고 低級한 푸레그매티즘은 업슬것이다。本來 이러한 善惡의道德主義는 文學은 姑捨하고 科學까지도 嚴格히 忌避하는바이다。事物의 理論的인 討究는그것의 善惡判斷이나 宣告는아니며 어떠한 社會問題를 理論的으로 分析하는것은 決코 그것이 善하나 惡하냐를 말하는것과는 別個의 問題이다。兒童은 一切의 社會問題를 恒常

道德

問題로 還元해버린다。兒童은 理論的인分析대신에 모든問題를 善하냐 惡하냐로서 決定한다。이리하야 科學的檢討를 謀避하는 手段으로 道德이 利用되기도한다。이러한 常識的이고 通俗的인 觀念으로써 道德이 云謂되는 境遇에는、그러므로 그것은反科學的、反理論的이라는 意味를띄게된다。

科學的觀念에依한 道德은 勿論上述한 常識的道德觀을 克服한곳에 成立된다。科學은 道德을 先、道德을 歷史性에잇서서 把握하야、그것을 下部構造우에 建設되는 上部構造로써 看做하고다。그러므로 常識的觀念이나倫理學이 갓고잇던 道德의 形而上學說은 무엇보다도 먼저 揚棄되어버린다。道德을 社會의 物質的根據의 歷史的發展에 依하야 發生한 하나의 歷史的所産으로보는까닭에 그것은 歷史的發展과 步調를 달리할수는업는것으로되어 倫理學의 觀念은結局 科學에 依하야止揚되고만다 이리하야 道德은 하나의社會規範으로 把握되고 따라서

社會

的秩序를 維持하는데有益한것으로道德的이고 그러치못한것은 不道德的이다 이곳에 道德體系는 必然的으로 分裂을 보게된다

그러므로 客觀世界의 分裂이 止揚되는날엔 社會科學的觀念으로서의 道德도同時에 揚棄되는날이다

確實히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文學的觀念으로써의 道德이란 上述한바와如한 諸觀念일수는업다 그것은 道德의 通俗的常識的觀念이나 倫理學的觀念이 止揚되고 社會科學的觀念이 終焉을 告한뒤에도 남을수잇는것이 아니면안될것이다 왜냐하면 이러케 確固한觀念으로써 存在할수잇슬때에만 그것은 足히하나의論理的카테고리ー가 될수잇슬것이기때문이다。

그러면 上述한바와가튼 諸觀念에서 自身을 嚴密히 區別하고 새로운文學的觀念으로써 設定될 道德乃至는『모랄』은 이지음 各方面에서 항용 불리오는바 流行語로서의『모랄』과는 어떠케다른것일가。爲先 우리는

最近

우리文壇에서도盛히 流行、濫用되고잇는『모랄』의 觀念에對하야 若干의分析을 가저야할것이다。

먼저 말수잇는것은 文學主義的『모랄』이다。이舊에依하면『모랄』이란 單純한 道德意識이나 生活感情等을 말하는것으로 一種의 心理主義에依한 倫理가튼것을 云謂하는데 使用한다『良心』이라든가 『自覺이라든가』또는 人間學的인 內省等을 서로엇거서『모랄』이잇는이 업는이한다。그러므로이러한『모랄』觀念을 細密히 省察해보면그것의 實際的인『뉴앤스』는 大端히 形式的인것에잇다고 보지안흘수업슬것이다。그形式的인것에서 자버가지고 다시 그形式自體를 獨自의內容으로써 膠着시커버린것에 지나지안는 느낌을 준다。文學至上主義者에 잇서서는때로는『모랄』은 아무데나잇는것으로도 되어잇다。作家마다『모랄』은다가지고잇다든가

世上

이와동『모랄』로된 모양으로『모랄』萬能主義에빠지는者가 即 이것이다。이러케되면 社會의基本原理를 떠다두다든가 人間性을 社會的歷史的에서 說明하지안코 恣意에依하야 解明할려는 에로티시즘이나 身邊小說이나 모두『모랄』이되어버리기도 쉽다。本來리베라리스트다 文學主義者는 一種의 心情上『모랄』을 捕捉的으로 가지고 잇슬뿐이지 아무러한『모랄리티ー』도 갓고잇지는못하는것이며 그러한『모랄』이란 봉건의 아즈랑이보다도 몽낭하야 信用할수업는 고약한물건이다(續)

鷲鷙 (九)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ー一

玄德 作　崔根培 畫

때로 경순이는 노마아버지를 차저와다。방문밧게서 담뱃대를 떨고 흙발을 엉거주춤 방바닥을 지러디드며 회로아며 모로안젓다。아랫목케 노마아버지를 보되 고개를 반쭝 트러 엽눈으로 본다。그모양이 흉사 흉서와 가텃다。그는 올때마다 열갈 멧개를 조끼주머니속에 넛고 와 방바닥에 꺼내노핫다。자기딴은 문명을 오는모양이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짧욱 벙자가 비위를 거슬일 말만한다。

『얼굴색이 아주 좋쾌우 저번만두 더 무서웁데 저번엔 첫째 먹일 질해야헌다는데 약두 소용업다는걸』

하고 허꿋을 차며 떡한 얼굴을한다 그러나 못는사람은 곱작이 그말대로 되어가는듯싶어 홍서가 뇌가려 도리가듯불는그러라。

『오늘 홍서가 오죽꿀찟에 될으른팔에 끄매는둘어。

가 도려오는 기적이 나자 는 술먹시 몸을 이르켜 나갓다。

그 경순이가 안저던 자리에 홍서가 가른모양으로 안저 홀금홀금 노마아버지의 기색을 살핀다。그모양이 또 흉사 경춘이다。노마아버지는 그것이 조끔전 장면의 연상인듯、그리고 가튼요구를 홍서 이놈도 다조지며 직속곳이안엇는듯 싶허젓다。그리고 이번은 상대가 홍서라는데 노마아버지의 노염은 좀더 컷다。

(홍서 너두 거퇴 욕심이잇서 구허날 차저와 面상을 처로고 안젓는거로구나。내그저 해중며리 도려스며 빨정이 잣드리나)

그리고 벼람부는날 입설이떠리켜 몸을 엘리며 지붕을 이여주는일 볼수사가 약이되리고 거괴헤 팔인들이 꺼멋게되도록 버것에 꼬든등을 구해오돈일ー 일족이 은혜도 영영돈 가지가지를 그는 더키우것을 삼켜는듯 가태적괴할게 배앗흔버리는

올낼듸다。그건 노마아버지가 시킨일뉴』

그러나 노마아버지가 못는듯만둥하니까

『아직 일지안우。해도두 되기전인데』

하고 여프로 술을 눈치를 살핀다。그리고 풀풀풀풀 기침을 손으로 막으며 엄드리는 노마아버지를 집짓 칙은하게 나흘 찌프리고 보드니

『몸이 저리쿠 올통사를 어떠케 지우。사람이 가렷술 한안늘 당길수잇서야 허지。노마는 어리구 안악네 혼자질수는업구』

그리고 경색한 얼굴이 잠시 어색한 우숨으로 입귀가 일그러지드니

『나두 손이는 사람이구 한해농사꿈 내가 지어줘두 조킷구먼두』하다가 얼굴을 꼿처물고『노마아버지 생각은 어떠우。그럼 가을에 한가지기에 두말씩처서 한섬도지루 내리다그야뭘큰 지주에게 가는 도지두 내가 몰구말여』

그러나 노마아버지는 작상이 겨든지두 모를일인데』

아래로게 누은 노마아버지는 일을 담으른채 점점 안색이 달리갓다。괘좆한 얼굴에 눈치가 바루스는것을 보고야 경추이는 당황해젓다。어허며 박게 흥서거다。

『천하의 의리부동한놈 가드니』

하고 흥서의 그 편자노리홍려까지 점잖은것으로 비위가 상햇다。

노마아버지는 그 가든문으로 급가야는 자기안해까지 고처보기시작하얏다。

안해는 밤이면 하얏게 소복을차리고칠성당에 기도를 올리러간다。생률을 먹고 귀뒤에살이을랑다고 생각하는 속엔 안해가 이칠성당에 가는놈은 은근히 크게 끔든노 마아버지다。그런데 못록 미든 남게 공이핀것을발견한듯 그는 정선이 팔게눈을 고치뎟다。안해가 진정 자기를 위하야 매일밤 진심마를달 가리저안코 그러는것일가 시퍼젓다。

(안해도 누구와 한가지 가기가 일족이 업서질날을 목종이이 아닐가。그리고 어서 병에 낫기를 축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바라는것인지 뉘알리요)

하다는 기픈밥 복두소이아래 옥수를 떠노코 소복한 젊은계집이 필수에베친 동녁으로 향장한 뒷모양이 눈에 선하고 그러나 너무도 익쳐스런 그림상에 제자신 동이기에 식은땀어 솟는 감으로 머리를 내젓다。

『안야 그건 내가 오생각하는거지』

소리를 입밧게내여 왓다。

그러나 하번 바로한 의중이 그대로 날려 상올리 업다。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辭典拾冊合本 タッタ一圓卅錢 (分冊は四十錢)

法律百科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字くづし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百万人の演說講話　社交常識辭典

特別代進呈品 國民家庭日記

國民中學講義錄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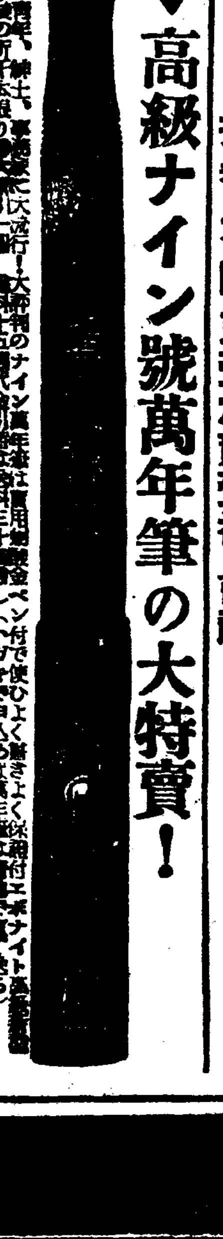
●定評ある!詳解漢和大辭典!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定價三圓八十錢をタダの一圓卅錢で大投賣!

詳解漢和大辭典　千五百頁大册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局區內西町 合資會社 國民書院日報係 振替大阪五壹六貳壹番



▼高級ナイン號萬年筆の大特賣!

▼正に白熱的!大好評 ―性教育のテキスト―

性典

▼人生至上の幸福に陶醉せんとする人は讀め!

一圓廿錢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一圓廿錢

一種五圓 十圓で教へた秘法盡く公開!!

萬國秘法寶典

一圓十錢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手紙上手は立身出世が早い!

手紙の事なら何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新案 手紙大辭典

一圓廿錢

景品進呈　いろは引大辭典　常用漢和大辭典

淋疾이면곳 루ー베리

리베ー루의特徵

一、粘膜으로의吸收가速하고服藥翌朝尿는藍色으로變하고强한리베ー루臭를放散하야排出하고急速히快感을感覺함

一、尿道를侵害하고잇는無數한菌은服藥後勢力이衰하야殺菌性尿로말미아마體外로洗出하고痛症을消散함

一、藥效를아는대는리베ー루服藥前과內服後의尿를바며專門家에게顯微鏡으로比較檢查를해보게하는것이가장速한길이며服藥後黴菌의死滅해가는現狀을볼수가잇슴

危險한療法은避하라

大阪市南久太郎町 竹村製藥所 振替大阪三六〇番

産業

需要供給調節코저 叺增産을强化
學校、刑務所까지動員

農林局에서는 十六日各道係官을招集하고 農務 米穀兩課關係者가 出席하야 叺增産協議會를 開催하고 五月以降의 需給對策에對하야 協議를거듭하엿는데今年은 特殊需要도 相當히 만흐므로 需要는 例年에업는 大量에 達하나 供給은 大體에잇서서 充足시킬만한 豫測을가지고잇다 增産方法은 從來에 取하여온生産獎勵를 一層强化하는外에

一、銃後報國强調週間等를 利用하야 農村의 叺製織을 獎勵함
一、學校當局과 連絡을 取하야 農村學童에게도 獎勵함
一、刑務所도 利用하야 極力增産에努力함

等을決定하얏다 이에依하야 年內의 需要增에 對應할수잇는豫想이나 價格統制、將來에잇서서의 根本的統制問題等에 關하야는 非公式으로 個人의意見으로서 二三의意見이 陳述되엿슬뿐이라한다

沙藿採取開始
凶作으로漁民憂慮

【羅津】年産四、五萬圓의産額에 達하는 羅津港의 沙藿은 지난 十日부터 採取를시작하얏는데이것은 羅津港의名産으로 해마다 四月이면 採取組合員을 爲始하야 各地漁夫가 採取競爭을내고캐는것을 今年도南으로는連津、芳津北으로는 西水羅、雄尙等地의外來船과 閭津 羅津港等地의 地方船數百隻이 一大長蛇陣을 처서 採取式을擧行하고 여기저기흐터저서 採取하야 一大壯觀을 이루엇다 그러데今年에는 沙藿이 大凶作이어서 昨年에比하야 五割이나減少될것이라한다 그原因은港內에 汽船出入이 頻繁하야 船油가 물에흐리이때문에 沙藿이 繁殖치 못한것이라는데 年産額 四、五萬圓을 豫算하야 漁民의生活에큰根據가되여오든 이沙藿의凶作으로 漁民生活에 莫大한 影響을줄것이라고하야 漁民들은憂慮中에싸여잇다

淸津果實市場活況

【淸津】淸津市場에서 三月中에 取引한 靑果는 取扱個數一萬三千二百九十二個 數量十萬二千百二十四貫 金額三萬九千二百七十一圓으로 前年同月에比하야 一萬五千六百二十九圓의 增加를보엿다 더욱前月에比하면 白菜、蜜柑等이 減少된外에 甘藷、大根、早生赤梨、菠薐草、夏蜜柑、鳳梨、바나나、네―불、里芋、水菜、慈姑等은 모두相當한 增加를보잇다 어느것이나 前月에比하야 約一割이 騰貴하얏스나 出廻는자못順調하얏다

洪城郡農會서 棉花增産計畫

【洪川】忠南洪城郡農會에서는昭和十二年度 棉花植付面積 一千四百五十町步로서 百八十萬斤의收穫이 잇섯스나 十三年度에는 植付面積 千九加一窓擴大시켜 二千五十町步에서 二百五十萬斤의 收穫計畫을樹立하고萬般準備中이라한다

南原叺生産 需要의三割不過

【南原】南原郡下一年間叺生産總枚數는 四萬八千四百八十八枚로서全郡需要의 三割도未及함으로 自給自足의 原則이라보담農家經濟의 立場으로보아 積極的生産獎勵를 講究할必要가잇다

鰮搾粕配給難으로 果樹業者大困境
鐵道局에貨車廻送要請

【咸南支社發】別項配合肥料의配給이 遲延되여 一大問題를 이르키고잇는 此際에 呂湖로부터 咸興에 廻送될 鰮搾粕도 貨車不足으로 조곰도오지안허서 咸興一帶 果樹業者들은 一大困境에 陷入하엿다

現在 呂湖에는 咸興驛으로보낼 鰮搾粕이、八百四十餘俵가잇는데 呂湖는 貨車編成驛이 아닌關係上 貨車不足으로 도무지 運搬치못하고잇다

鰮搾粕은 果樹業에 必需肥料로 目下 施肥期임에不拘코 肥料가업서 큰困境에잇는데 咸南道에서는 鐵道局에對하야 至急 貨車五輛을 呂湖驛에 廻送하여달라고 要請하엿다한다

牙山棉作奬勵

【牙山】忠南牙山의 昨十二年度 棉作은 郡農會에서指導獎勵를 徹底히함만안이라 天候順調로 耕地面積 一千百町步에 一百十五萬斤이 産出되여 棉花市勢도 斤當十六錢以上의 好價임으로 多少農家의經濟를 潤澤케하는 實効를 나타내이고잇다 郡當局에서는 今年度에는 一百二十萬斤을 生産시킬豫想으로 一層獎勵中이다

甕津海苔養殖 産額廿三萬三千餘圓

【甕津】黃海道甕津郡沿岸에서昨年海苔養殖事業은 例年에比하야 頗히良好하얏다는바 其立面積이 一百十三萬九千三百三十九坪에 其立柵數 二萬六十一柵 從業戶數 二千二百十一戶로 金額은 二十三萬三千餘圓이라고한다

慶南江原沿岸의 鰮漁業好成績
春漁順調나秋漁가不安

東海岸의 鰮漁業은 水溫에伴하야 今年度의 新漁期에 드러갓는데 慶南及江原의 春漁의成績은자못 順調를示하고잇다 卽 今年의 春漁는 氣候의 溫暖에依하야 水中溫度가 順調로 推移하야 例年에比하야 二週間以上일즉이 出漁가 可能케되여 而慶南北에서는 巨濟、對州、江原道에서는 注文津、長箭도 出漁하야 好成績을 내고잇다 數年來 春漁는 大槪不振으로 秋漁에드러서 大漁를 繼續하는 것을例로하고잇든 關係로 春漁의 順調가 歡迎되는一面、秋漁에의不安도 적지안흔모양이다

光澤色澤兼備한 黑慣石·大理石
玩賞陶器의會寧燒

本社主催展覽會記念 全朝鮮特産品紹介 咸南北篇 ⑦

咸鏡南道

燕麥

新興、長津、豊山、三水、甲山等 高地帶에서 産出되는데 同地住民들의 食糧이될뿐아니라 軍馬糧으로서 朝鮮駐屯軍倉庫에 供給하고잇스며 品種은 主로 在來種이다

馬鈴薯

本道高地帶産은 肥大하고 澱粉이만흔食用이며 風味가 淡白하야 일홈이 노픈데 長津、豊山、三水、甲山、新興等이 그主産地다.

乾明太

乾明太는 全朝鮮中에도 本道가 主産地일뿐만아니라 特히 長期貯藏이 可能한點에서 冬期의 漁家經濟를 潤澤케하는 唯一의 産物이다

明卵젓

明太의 副産物로 産하는데 品質이 良好하고 風味가 佳良하며 長期貯藏이 可能하야 元山、咸州、洪原、北靑等地에서 産出하는것은 朝鮮은勿論 內地에까지도販賣를 開拓하고잇다

鰮搾粕

魚油製造의 副産物로서 나는것인데 各種肥料中 主要한것으로 大部分은 內地에 移出되며 産額도年年히 增加하고잇다

雲母

端川雲母라하면 鑛量이 豊富하고 品質이良好하야 古來로부터 有名한것인데 鑛石은 原地에서 選鑛한後 內地로보낸다

杞柳製品

長津地方의 高地帶河川에 廣範圍로 野生하는 杞柳를原料로 行李 바스켓等을 製造하는데强靭한點에서 一般에게歡迎되므로 杞柳組合을 組織하고 各地에販賣網을펴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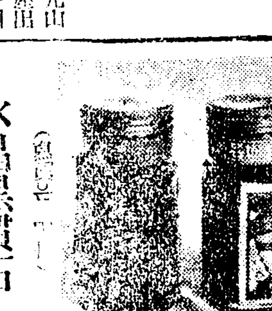
咸鏡北道

大理石

城津邑에서나는 大理石은 白色、肉色의兩種이잇는데 建築用材外에 風鎭、床置、門標等 裝飾用品으로 널리使用되고잇다

雲丹

城津邑에 生産되는 雲丹은原料가新鮮하고風味가佳良하야 여러가지로加工해서食料品에供하고잇다



(寫眞은 雲丹)

水昌黑慣石

雄基、羅南에서나는것은 優雅한光澤이잇서서 各種裝身具와 裝飾用具로 製造加工되고잇다

(寫眞은 黑慣石)

會寧燒

會寧燒는 東邦本道의特産品으로 古來로부터 全朝鮮의愛賞으로되여오던것으로 그淸楚한型과 典雅한色은 이會寧燒의特色으로 會寧地方을中心으로 産出한다

(寫眞은 會寧燒)

東亞特許 家庭の溫泉 六一〇ハップ
모든病이나기쉬운早春에는 家庭에서溫泉浴治가第一！
속에서부터훗군〳〵 더워저서常春의快悅！
【各藥店에잇슴】
神經痛 피로마티스로 手足이저리고아픈사람
血壓이놉고耳鳴과 胃腸으로苦悶하는사람
動脈硬化와中風系統의人 婦人病、帶下、腰冷으로 辛苦하는사람
神經衰弱、히스테리―로 뒤숭숭해서잠못자는사람
脫肛、裂痔、疣痔、穴痔等 痔疾로辛苦하는분、티진 대、凍傷、皮膚病
感冒流行의豫防에治療에
發賣元 六一〇ハップ本舖

敗家亡身의淋疾은 『ネオヂリン』으로 根治하소서
(各地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朝鮮總代理店 木村藥房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御推奬
ノーシン 노―신
●머리가갈러지는것가티몹시아플때!!
●바늘로쑤시는것가티골치가아플때!!
그리고 머리가아프지안트래도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흐릿터분할때 나술을過飮하고餘毒으로氣分이 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 잘낫는名藥입니다 만일頭痛으로 悶苦보는때가게시거든엇지말고 어노―신을 꼭한봉만잡수어보십시오 언제ㅣ머리를 아펏든가? 하는듯깃을
가질뿐아니라 아조 머리가 明快해어리케 거뜬하게 잘낫는것이 노―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害롭지는 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 잡수십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 떨어치지못할뿐아니라 어려한良藥은 아모조록우리同胞에게 만이宣傳하야서 頭痛으로 고생하는분이게서거든꼭어노―신을 服用하도록가르처줍시다。
노―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處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 노―신과비슷한 藥品이 만히나와사오나 잘못하면속기가쉽습니다 사실때에잘注意하십시오
登錄商標 帽子 印잇는 ノーシン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郞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大好評!!『女性』五月號發賣中!! 定價二十錢

群仙港修築前提로 技術員實測着手

來卄六日부터十餘日에亘해

住民의要請이奏効

【咸南支社發】모다가긍박한 행세가운데잇는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며 도주민들이 충심기하야 추진에매진하고잇는 군선(群仙)어항수축에대하야서는 예산관계로 일군에착공할수는업스나 기초측량이라도하야줄 필요가잇다고하야 함남도에서 투차 총독부에 그파견을 요청하야왓다 어번이요청이 주효하야 오는 이십륙일부터 총독부 포곡(布谷)기수등기사명이 네려와서 약 반개월동안을두고서 실지측량을 하며 수축의기술을 기술적으로 세울터이라고한다 군선실측한다음 다시 상호(三湖)실측도 착수할는지도 알수업다고하는데 여하튼 이번실측은 군선항의 수축에며 커다란 광명을 주게되엿다고한다

沙里院의火災 損害約五千圓

【沙里院】십칠일 저녁열시경서리(西里)일흥상점(日興商店)아렛층 누비이불공장에서 불이일어나 순식간에 동공장 양옥이층전소(全燒)지켜버렷는데 원인과 손해액은아직 조사중에잇서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나 상점에 모직공 한사람이 자봉기게(裁縫機械)소제에열중되여 입에물엇든 담배불을무의식중에 내버린것이 여페잇든솜(綿)뎀이에 떨어저 손댈사이도업시 불길이 일어낫다하며손해는 찡거ㅣ자봉기게 열대를비롯하여 부속품 수천원어치를태워 그손해는 오천원이상이되리라고한다

신천읍은 현대문기계(自動車)또 한층 시민의 대부분이 동원되는 혼잡한 날인데 아츰열시쯤 부내 치마정(馳馬町)길우에서 손님을 태우고 려대로가든 합남 일천이백구십팔호 합흥택시회사 자동차가 돌연 전면으로 길을 건너가고잇든데 어린애가 잇슴으로 급히 정거를시키려고 하얏섯스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충돌하얏다 피해어린애는 서정(西町)의 고순리(高順李)(六)로서 머리와 몸에치료 이개월의 중상을 입엇다고한다

이날은 도내 교통훈련데이로서 화생 경관등 삼백여명이 총동원하야 취체를하고잇든중인데 우습게도 첫시간에 이가튼 사고가생겻다

技師團來着機會로 江口港改築陳情

各團體代表者들이

【盈德】경북영덕군강구항(盈德郡江口港)은 본군의 관문일뿐아니라 수출입(輸出入)이 빈번한 양항이오 또한동해안에 유수한 어항(漁港)이므로 본도에서도거액의지방비(地方費)를 투하야일이、삼기의 축항공사급 호안(護岸)방파제(防波堤)등 공사에 착안하여왓스나 아직도 미비한점이만허 선박(船舶)출입에 불편할뿐아니라 백여리의유역(流域)오십천(五十川)하류이므로 장마때마다 나려오는 토사(土砂)판게로 발동선출입에는 큰 지장이 잇스므로 지난십칠일 오전십이시경에 총독부 본간(本間)복정(福井)각 기사(技師)급전촌본부속(田村)추월도토목과장(秋月道土木課長)등의강구시찰 기회에 좌기 대표급 시민 다수가선두로、상륙의 좌기각항을 진정(陳情)하엿다는바 일반시민은 하로속히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한다

松鈴江口漁組理事、韓圭烈 江口金融組合長 盧東植 江口面長外 數十餘名

一、江口港 南防波堤延長工事催成의件

一、浚渫工事催成의件

義城教育界喜報

五柳洞에簡校設立

【義城】성북의성군옥산면에는현재소학교가 한곳잇스나 아직사년제로 매년수용아동수가 사오십명에 불과할뿐아니라 면의면적이 대단히 넓은우에 교통이 지극히 불편하야 아동교육상크게불편을 느껴오든바 당국의노력과 면민의열성으로 금번옥산면용인오류동(五柳洞)에 오전소학교(玉田小學校)부속간이학교를 설립코저 방금군학무게에서 인가신청중인데 일반은 하로바삐 인가가되기를 고대하고잇다

江原道殖産契 四百餘個所

【春川】피폐한 농촌(農村)을개생시키고저 새살림을꾸며주고저 농회를든 농촌재생운동은 농촌의 물시량방면에 적지안흔소생을 보게하는데 소화십년가을제령(制令)으로 실시된식산게(殖産契)는 그간개생부락에 설치하야 공동판매(共同販賣)공동구입(共同購入)산업지도(産業指導)공동시설(共同施設)공제사업(共濟事業)등제반기구에 팔목할성적을 나타내여 년도말현재로 실로전도내에 삼백칠십구개소나되는데 금년도에는일층박차를가하야 농촌개생에 만전을기코저 그복안은 심의중이며 일백칠십개소나 되리라는데 기설게수를 군별로 조사하여보면 다음과갓다고한다

春川	二五	麟蹄	九	楊口	一二	高城	一八
淮陽	一七	通川	二一	襄陽	二四	江陵	二三
三陟	一三	蔚珍	二四	旌善	一〇	平昌	二三
寧越	一三	原州	二六	橫城	一三	洪川	一九
華川	九	金化	二一	鐵原	一九	平康	一三
伊川	二三	計	三七九				

交通訓練첫날에 小兒轢傷事故

【咸南支社發】교통훈련을 시작한날 아침에 벌서 함흥시내에서 자동차사고

更生한信聖校 卅二回記念式

【宣川】중천된 파란의 난관을 무난히 돌파한 개생의 신성학교(信聖學校)에서는 설립삼십삼번째맛는 창립기념을 십팔일오전열시 동교강당에서 배배되는이기

校長以下教員決定 卄四日부터開校

第一回合格者六十名도發表

安東新興國民高校

【安東縣】수년간을두고 재안동포가 갈망하고잇든 동포아동을위한 중의교는 중등교설립기성회 이사장김동찬(金東贊)씨외유지제씨의 노력과 당국파의 절충이 성공하여 지난이월중순만주국 문교부로부터 인가가잇슨다함은 일즉이 본보에 보도한바이어니와 이사장은 인가즉시에이사회를 열고글후 학교경영에관한 사항을 토의하든일방안동령사관을 통하야 조선총독부에교장의 교원 추천해선을 의뢰하여원산으로부터 이좌형가 (伊佐案作)씨를 교장으로 이동천부(伊藤正夫)리범조(李範祚)량씨를 교원으로 임명하고 만주어교원조만비(曹晚非)씨등 사씨가 영예잇는 초대교원으로 취임되엿는바 다년간대망하든 재안동포아동들은 조선내지로부터 학생모자가 왜도하여 오십명모집에 사백십명의 지원자가잇서 학교당국은 시험장소를 대정보통학교에 옴기여 지난십삼일부터 삼일간시험을 시행하고 십칠일오후여섯시 당일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엿는데 학교당국은 응모자다수로 모집생오십명외에 보결십명을 발표하얏는데 이보결생은 이사회와 기타의 인가를어더보결생도 합격자로 옴기게되리라고 학교에서는 오는이십사일부터 개교하리라한다

最初合格者

金顯洙 朴鳳洙 崔官和 白宗鎬 車鈞相 高 純 沈奉日 韓九玉 金成勳 洪敏洙 高鳳根 金東根 白泰善 鄭熙彬 金昌慶 金東煥 崔贊用 周鳳寬 金炳錄 崔文洙 李泰英 朴永寬 申仁大 金時龍 李時芳 李承鎬 崔仁範 金成浩 金國鎭 李時鐸 車之默 金昌浩 金潤會 金泰元 金鎭璋 金雅瑩 白石祚 金鳳武 鄭必成 崔斗燮 金正國 車鳳鉉 (以上五十名)

▲補缺 孫昌熙 白宗洪 李寶鎬 金東源 崔昌祥 鄭明俊 張奉武 慶在承 徐丙憲

廣德、松岳에山火 十七町步를燒失

牙山天安兩郡의接境

【牙山】지난십칠일 오후오시경부터 충남천안군광덕면 망명리(天安郡廣德面芒命里)뒤에잇는광덕산(廣德山)에서 발화되여 산(山)십여정보가 전소되는동시에 인접지인 아산군송악면 (牙山郡松岳面)뒤산까지 연소되여 약삼십정보를 전소시키엿다 어보고를접한 송악소방조원과 군사삐게원이 현장에 방조원급 달려가서 진화에 노력하엿슴으로 동일밤십시경에야 겨우진화시겻다는데 발화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하며 손해액은 수천원에 달하리라고한다

天安金組總代會

【天安】천안금융조합 (天安金融組合)에서는 지난십오일 오전십일시부터 동조합 사무실에서 제삼십기 정기총대회를 조합장 우연열(禹明烈)씨사회하에 개최하엿다한다

●新校舍를지은 安東新興國民高等學校

와 동소할지는 기분에서 업혀서 식을 거행하엿는데 선성하고교동부아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되어잇는 신성학교 창립위원중에 오직한분남아잇는 김석창(金錫昌)목사를청하야 삼십년전오직단둔 오십천식모아 출회당들세운세당시의 눈물지운회사당들비 새로운 감상에서 술더다시새로운 감회를 주엇는대 삼십년회의 기념식을 거기로 약지지신성교우(校友)회총장이 약속되어잇다 그후에는 선정축구단을 계하야 기념축구시합을 열고 기념품을 기념하엿다

*

가지가지의모욕은 우리의어리석은탓

送還者의눈물겨운失敗談 ⑤

玄海灘密航夜話

처리의 고행항해(航海)가 드디어 끈난 이것은 이상에 간단히기록한사실에서 능히 알수가잇는것이다 활동도 도해하려면 수가 잇는것이다

욕지의 뿌로커들에게 어승포용의 손흘넘기여 홋처된 신세에 다시바다의 뿌로커에게 전매(轉賣)된몸 그흡일하자는 뿌로커들의 이러한 이면에잠재한간게와 내용이 잇는것조차 모르고 시장의상육파가티흥정되여 넘기고 넘겨진 신세에서현해탄거츠른바다를 그나마 엉뚱한경계를피하야 건너다할지라도 그대해운든 가슴은 나려안기도전에 또다시 그곳경찰에게발각되여허둥 고향으로도라서지아니할수업게된다

그리하야 건너산 미르로 기우러지는 저녁해비치 갈매기떼가촉후는 부산항을 돌어오는 뿌로커라선으로 송환되는자도 이들 밀항자의 미연에 걷거되는 수의 약삼분의일은 차지한다 하니 뿌로커들의 발호를 파이김작할수잇는것이며 작년년에 일천여명의 밀항자들, 부근어니는다 이여서 일합미지하도

이제그들 송환자들에게 밀항할때의 고생한것과 뿌로커들의 끄이는 수단방법에 대하야 체험담을 틀어보기로하자!

수입전 밀항자 이상록(李相錄)이씨 강원 경황부의손으로 송환된 밀항자중에서 전라북도순창군적성면지부리(全北淳昌郡赤城面支北里)양모(梁某)(二三)라는 청년의 말을소개하면 다음과갓다

각하면 그놈들을 당장 죽이고시픈 생각이 납니다 고향서떠날때 부모형제를 작별하고 돈버리 가지고 만나자고 구름지원으로 약속 하엿스나 이길이(밀항)이다지도 험하고 거칠 고생스러인 세상인줄 몰라

러한 고생을 하게되든 오로지 우리들의 어리석은 탓이겟지요 고향에서 그들에게끄인바되여 큰사업이나 하러가는것처럼 날뛰며 업는돈을꾸어대느라고 허덕이든 일흡생

이야 알택이 잇겟습니까 오늘저녁에 떠나게될러이다 다들 돈을내노하라하야 어머니가 지첩이 다니면서 거의구걸하듯이 빌어온돈과 일본내지로 떠난다하니 섭섭이여

기는 친구들에게 푼푼이 어든돈 십칠원을주어던바 오늘저녁 오늘저녁하던것이 닷새가 경과한날밤에야 비로소 어딘지모를 섯(鮮)오르다라고가더니 어느주막에서 기다리라는것이엿지요

나와가치간 세사람은 전부경상북도사람들인데 우리들네사람만 건느는가하고 서로낫을처다보고 고향서 우리들을위하여 군심과걱정에 잠겨잇슬것을 서로이야기하면서 밤을밝히고잇스니자정이넘어서 우리들을 다리고온자가 아닌사람이 따러오라기에 허더허더타리 갓드니그곳에는 우리들외에 벌써삼십여명의일행이

이잇더군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을때가 남치흔 그들은 분개하여기면서 그렇다 그래도 매는맛지 안첫나 맛요나고 전기망군흘러밀어버리고 내가 이야기 하겟습니다하며 눈에눈물을 먹음고 말을이여 주는이는 경북에 산

다는 집모라는사람이다 소위밀항선이라는 발동선을때는 그저한사람씩 선전이승하여 바다에들어가서는 (송도봇수게다에떠러지는 최구도잇스며배지는안흔것을 못볼러가 열리어 서로들 붙튀는 바람에바다에떠러지 안흔것만 다행이어 뚜껑을하여서스니 바로눈치도뭇하고 그냥안저서 떠나게되지도요 배가여디쯤가는지는 몰라도 험한파도가 배밑구리를칠락부디치는 소리는 아무리생각해도 이대로 생명이 부러갈갓갓지안흐므로 뚜껑을열어보려하니 거츤물결은 배웃바닥까지 삿치지냅니다 구려저어가고 저기에서돌하여 배안을도라고 동무들은 여기에서 도아지밥을 그냥지독한 냄새와 토해낸오물이 배의동요에따라 쿨러다니니 그안에 잇는사람이야 어디사람입니까 그저 지옥이라도 생지옥이지 이러한고생을 일주야를하고나니 배의동요가 업스므로바깟을 보앗드니 만일 바깟에 나와잇다가는 다들 붓잡혀갓슴니다 쿨랄저도 땔매에 잡사이지요 그때에보냄에 돌려든 어떠케든 훌렁어나보자는 생각에 나와보려고 이러매는 매질입니다 (계속)

사진은 政府의本業官山水上署(釜山支社寫眞)

長篇小說 林巨正 【89】

洪碧初 作　金鱗超 畫

소굴 (五七)

리봉화이의 작난좀 할이 파뭇어 불어나뉘어 두제에 꺽정이가 일행을 다리고 개천바닥으로 나려와서 오간수 수문(水門)다섯중에 물이 말러사진 수구(水口)나마문을 꿀라서 기어나가는데 소흥이가 선봉 나가서 한사람의 깃을 밧고먼저나간 사람이 차례로 다음사람의깃을 바더서 사내 다섯사람이갓하나 부시저아니하얏다 선바게 나와서 다시 천변길로 영도교어서 다려라하면 그다지 멀지안흔 영도교 하여 서로의 불턴는 바람에바더

「어티루 가실럽니까」 「아버지 가는데루 따러가니까 난 몰라」 하고 꺽정이가 너털웃음을웃

두평을하얏스니 바로눈치도못 하고 그냥안저서 떠나게되지도요

「리봉화이가 결흥을 흔드렁켜고 돌아서서 꺽정이에게

「어듸루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

서 가는데루 따러가니까 난몰라 하고 꺽정이가

「아버지 가는데루 따러가니까」 「난 몰라」

하고 꺽정이가 너털웃음을웃으며

「이사람 아를 엇다구 어떠케 보나」

하고 나물하엿다

「결국이 엇저면 저러케 빠르시까요 저녁전 나는 결졸오서는 그럴 보니까 나는 결흥이 며 안걸리든데요」

「한 삼십니 넘는것을 가게면 나는 삼십니 남짓해」

「장수원이 예서 몃니겟지요」 하니 「불세두시 가면 성밧 장수원이야 가겟지」

「저애들한테 엇덧길라나」 꺽정이가 신불콩이와 꽃동이를 가르치니 「걸혀요」 소흥이는 도리머리를 흔들엇다

「아이구 망치해라」 소흥이가 말은 먼저보다 호통스럽게하야도 머리는 갸웃동 아양을 짓는것이 많이 업마꿈 슬깃한모양이엇다

「자 내게 업히게」 「그대로 걸어갈텐니 손만 붓들어주세요」

「난 인제 더못가겟세요」 하고 꺽정이를 보고 웃엇다 「어부바」

「그럼 내가 업구가까」

하고 소흥이를 두려처 업으니 하얏다 꺽정이가 우스면서 「어부바」

「아이구 남부끄러워라」

하고 소흥이는 꺽정이 등에 엎을을 파뭇고 소흥이가 큰 머리를 나려노코 잇머리만 틀어엇게는 꺽정이 업히는데 가르거치는것이 업섯다 꺽정이가 소흥이를 업으며 봄의 바람이 잘 불엇스나 밤이 원익 늦저서 처량을이에야 장수원을 대어왓다

이엿섯다 황천왕동이가 순시간에 까마케 멀리가는것을 소흥이가 정신보다가 발을 헛드되고 넘어질뻔하야 꺽정이가 업어주인파면분이 생기어서 무슨날어라고한번 (釜대전까지 바든일)

나와 그뒤에 황천왕동이가 서울을 자주 올하나리는중에 원

석다 외익의 말화를 제꼬아 받도록하는사람이 비일불회수를 전평도 업고 잇정도 업을을 찌어지면 말(馬)을 탓뚤하하고 면하치이 매매하다가 소흥이따라오는것이 다가하야 꺽정이는 소흥이집에서 출헌을파보다 되러 떠돌어 낫섯다

【우리가 하루 저쪽골목 가려면 서울을 압구홀아서 무악재루 나가야할텐데 조정에서 비상한 수단을 써서 무악재 길목을 미리 지키지말란법두 업구요 또 우리가 아무리 밤도아 길을 가드래두 내일모레나 청석골을 들어가겟는데 조정에서 신속히 조치하면 내일 하루안에 서울서 송도까지 연로의 방비를 서귀수가잇슴니다 그러니 청석골루 가지말구 망봉산으로 가는게 조흘듯합니다」

하고 리봉화이가 진담하는것을 꺽정이는 간단하게 「조흔듯합니다」 하고 대답하엿다 망봉산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영도교를 건너와서 눈허 아는길을 퍼저나올때에 소흥이는 짐이 업시 아니어서 걸음을 걸어다니다 꺽정이가 거름이 노리어 주나 아모지 아니하면 걸음을 잘하야 노량업이 꺽정이가 걸어다 소흥이의 걸음을 보고 「짐 방자스므니 말이기 엇게 꺼정이를 보고」 하고 말하엿다

「제가 먼저 가서 방을 치워노코 잇겟습니다」

호랑이 일르켜요」

「이대로 여기시면 내 가 보면 수로나 그니까 장수원(長水院)가서 자고 가지요」

하고 물으니 꺽정이가 「그래봐라」 하고 대답하엿다

장수원에 다달은 때 원(院)집이 희소하야 공 저가 갓가운데 큰주의인가가 잇다 조코 인가면은 다라워서 나왕서 다른 대라 원(院)이엇다 지난해 청석골패들이 망봉산에 와서잇슬때 꺽정이가 서울을 오

光陽 朝鮮特產品展覽會視察團募集

▲期間 四月二十六日부터四日間
▲團員 二十人
▲申込期日 四月二十日까지
○主催 朝鮮日報光陽支局

檢眼無料(學生限)

檢眼於院本眼科

◇檢眼◇ 眼科醫學博士崔先生科長先生擔任下의 最新科學的機械를設備한檢眼室에서正確히視力을檢査하야드립니다

◇眼鏡◇ 長久한歷史를가진三十餘年間의熟練한 技術과精密한機械를完備한眼鏡部工場에서正確히調製하야드립니다

京城驛前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歐米各國世界第一特効藥完備

米國生物學士 韓箕道內科醫院

京城鍾路パコタ公園正門東側隣

電話光化門③一八七八番

三仙膏

크고적은 腫物에 手術로 苦痛을 받는것보다 三仙膏를 써보십시요

同朴先生 延專教授 先生 丁來吉先生 夫人 朴英慶女史 金麟善先生 徐相勛先生 李根培先生 以下略(無順)

東京・城本舖・路鍾 共生藥業株式會社

定價 一五三三十十十

漁具

投網、鳥捕網、釣竿、繼竿、釣針、絹糸、麻糸、綿糸、其他各種

京城府黃金町四丁目 製造卸商 海鮮商會

電話本局四三七〇番・振替京城二〇五七九番

(定價表進呈)

高給社員招聘

平南北黃海道中心의地方에在宥給社員及出張所長을招聘希望者는 履歷書添付照會 平壤府幸町四六 大正生命保險株式會社支部 日本教育生命 電二三〇二番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社員招聘

一、年齡二十五歲以上四十五歲以下 二、內地에資力잇는 士를望함 京城府長谷川町一二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自動車運轉手 全!最高權威!朝鮮總督認可! 入學則送呈、來問歡迎 京城府太平通二丁目五六 京城自動車學校

板谷生命

固定給社員募集 小口保險契約係 京城府永樂町一丁目 (以下不鮮明)

醫藥知識 第三號 定價拾錢 東京商式會社

朝報案內

恩給 七城鍾路 鄭商會

鄭相珍氏의美擧

[丹城]진주읍가사정상진 (丹城)山町鄭相珍씨는 (時價貳九百圓)을 자기소유인 선산(先山)의 위토로 기증하엿다

カゴメソース本舖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名古屋市外上野村

京城組銀預金 遂二億圓突破

年初보다四千六百萬圓激增

靜的資金化去益顯著

年初以來京城組銀勘定預金增大傾向이 顯著히나타난것은 旣報와가튼데 四月中旬計의 二億一千百七十六萬圓은 近年의最高記錄이오 本年初의 一億六千五百萬圓에比較하면 預金은實로 四千六百四十一萬圓이 激增되엇다 右預金의增大는 主로서定期預金과特別當座의增加하는 靜的資金化된것이니 卽一月初(前年年末)과比較하면 定期預金은一擧에 二千四百萬圓, 同期特當은 一千萬圓이 增加하엿고 當座預金은 四百萬圓이 減한狀況이다

貸出은漸減

京城組銀四月十五日現在의預金貸出은 預金二億一千百七十六萬八千圓, 貸出二億一五千八百九十六萬圓으로서 預金은 前月末에比하야 더욱增大되어 前月末比一千八百五十一萬圓四千圓이 增加되고 前月同期에比較하면 實로六千五百十五萬八千圓의 膨脹에相當하다 一方貸出은 減少되어 前月末比百八十二萬五千圓減, 前年同期比 四千四十五百七千圓의增加이다 이預金增大의 基調는 注目되는데 預金貸出前年同期比較는 如左하다 (單位千圓)

◇預金

	四月中旬	前年同期增△減
定期	[illegible]	[illegible]
當座	[illegible]	[illegible]
特當	[illegible]	[illegible]
通知	[illegible]	[illegible]
諸預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貸出

	四月中旬	前年同期增△減
證書貸	[illegible]	[illegible]
手形	[illegible]	[illegible]
當座	[illegible]	[illegible]
割手	[illegible]	[illegible]
荷爲替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朝鮮信託勘定

四月十五日現在의 朝鮮信託本店勘定은 三八、六五九千圓으로 前月末比一七五六千圓이 增加되고 信託도增加되는바 그內容은如左하다 (單位千圓)

金錢信託	三四、〇二一
有價證券	七、四九四
不動產	一二、〇七六
其他	一〇、〇六六
合計	六三、六五九

京城倉庫現況

三月中의京城府內倉庫貨物出入狀況은如左하다 (單位圓)

	個數	金額
本月入庫	一六八、四四四	三、五二九、七五二
本月出庫	三、三六六	三、六九七、一七九

月末現在高는 十萬八千、百個四百十八萬七千七百七圓이다

米運賃協議會

六月東京에서開催

朝鮮米의 運賃改訂은 七月末의 改訂期를앞두고 協議會日字其他에對하야 船會社荷主間에折衝을 行하고엇든데 結局六月上旬東京에서 開催케로되얏어다運賃의 引上은 船會社側으로서는 相當한 引上要求가잇슬것으로보이는데 海運界의 現狀을보아大幅引上은 目下無望이라한다

農林省米輸送

周崎汽船에落札

農林省의 買上朝鮮米二十五萬石(五萬噸)의 內地移送은 過般入札한 結果 周崎汽船에 落札되엇다 噸當運賃은 …

國債와預金

(新)(知)(識)

馬場財政의 刑億豫算에 對한 我國民도 벌써豫算의 數字에는 不感症이되여 七十三議會에서는 實로八十三億六千萬圓에미치는 膨大豫算을無修正으로通過시켯다 그中에서도 國債로서는 勿論五十六億圓의 巨大한公債發行을 豫定하고잇스므로 今年度의 公債發行豫定은 前年度分의 未發行額 九億七千萬圓을加하야 本十六億圓가 發行되게되엇다

萬若 右額의豫定과가티 發行되면 我國債總額은 「國債百億의危機」가 絶叫된以來 겨우 兩三年으로 二百億圓에達하게되어 實로 急角度的인 增加를 이루게된다 그러니 此는必要할 바이다

그것은 適當히 運營만行하면 조흔것이다 貿易收支는그로부터方法으로써 物의 經濟를 出發한 消費節約 貯蓄奬勵를 發見하엿다 어것은 國債消化를 爲해 實로必要할 政策이라고 할수잇을것이며 國債發行高와 預金이 아래와가티 (國債는 …)

國債現在額과預金高

會計年度末現在, 預金은 曆年末, 單位億圓

	國債	預金
昭和二年	五四・〇	一一三・八
同 三年	五八・三	一一二〇・八
同 四年	五九・六	一三五・五
同 五年	五九・六	一三四・四
同 六年	六一・九	一三二・五
同 七年	七〇・五	一三五・五
同 八年	八一・四	一四三・五
同 九年	九〇・九	一五二・二
同 十年	九八・五	一六一・〇
同十一年	一〇五・七	一七四・〇
同十二年	一二八・二	一九四・四
同十三年	一九三・九	(未)?

世界金保有高

米國이過半을占有

米英佛이八割日本第九位

總額百三十七億餘弗

【國際聯盟調査發表】

富의偏在라는것은 資本主義經濟가 發達한今日에잇서서 흔히 듣는말이지만 國家間에도 그러하다 제金富의表現인 金의各國保有高를 國際聯盟月表에依하야 보면 다음과가티 米國을筆頭로 英、佛、和蘭의順序로 我國은九番이되엿다 (單位百萬弗)

米國	一七、五三六
英國	一、五九二
佛蘭西	二、五一六
和蘭	一、五四九
瑞西	一、五八三
白耳義	三五三
일렌티나	三四六
印度	一六二
日本	一五四
瑞典	一四四
其他合計	一三、七五二

右表와가티 世界의 金保有高百三十七億五千二百萬弗中 米國은其過半을占하고 또英佛을合하면約八割을占하게된다 어것을富의偏在라고하지안코 무엇이라고할것인가 이에反하야 『가지지못한나라』日獨伊의 寂寞한狀況!겨우我國만이 第九位에處해잇슬뿐으로 獨伊存在는 보이지도안는다 여기에 世界不安의 根源이 있고 景氣가沈滯하는原因이엇다

까소린完全統制

特約店에同業組合結成

朝鮮內의 까소린市販統制는朝石及外社의 紳士協定을 基礎로하야 販賣特約店의 地域別任意組合結成의『코ー스』로準備中인데 特約店組合이 任意組合으로는 統制上障害가잇슴으로 總督府指示를바다 重要物產同業組合을結成케로 方針을變更하고 右總會를 開催케로되엇다 各同業組合總은 來月八日創立總會를 開催케로되엇다

一、全朝鮮을 各地區로 分하야 五月末까지 設立하기로되엇다

各地域別로同業組合을結成한다

一、太體南鮮、湖南、中鮮、西鮮北鮮의五地乃至湖南을除한四地에 各其設置

一、五月初에 一齊히 創立總會를열고 組合統制는 七月一日부터 實行

어同業組合結成에 依하야 까소린은 完全한 統制時代에 入하리라한다

三井系製鍊所着工

新義州의 三井鑛山系製鍊所의 建設은 準備中이던바 本月末或은 五月上旬에는 着工키로 되엇는데 能力은 一日百五十噸으로 한다

朝鮮重工業活況

釜山의 朝鮮重工業은 最近활발 配當을 許可하려한다

穀協北支慰問

經濟調査兼해

朝鮮穀物協會에서는 北支皇軍慰問을兼하야 北支經濟視察을하기로되어 齋藤會長을 團長으로한 一行二十六名이 二十七日午後二時三十五分發 奉天을 經由하야 天津、北京、張家口를歷訪하고 來月十七日 歸京할豫定이라한다

土地改良會社設立

資本百六十萬圓

【慶北支社發】慶尙合同銀行取締役寵雲用氏는 市街地計畫令實施 …

米倉倉庫新設

群山과仁川에

米倉의 收容貨物增大에 伴하야 倉庫增設은 工事를 急히 하고잇는데 群山、仁川에 各今月中에 完成케로되엿다

◇群山 上屋增設、一六二坪 倉庫新設一二三六坪

◇仁川 倉庫增設九〇坪 計 三百八十八坪

纖維界의

大豆·大豆粕으로

人造羊毛를製造

革命完成

昭和產業會社자世界纖維工業界에投하야 大豆、大豆粕으로 人造羊毛를 만드는데 年末同會社가 期的인發明은 奈川縣高座郡寒川村馬入河町 工場에서 着着試驗中이든바 極히 有望함으로 近近同所에 設立될 敷地十萬坪의 工場에서 大量生產의 혁신一步를 내여 드디게되여 爲先二個所에人造羊毛의 纖物工場이 設立케되엿다 그러데 그中、個處의 工場을 水戶市外赤塚昭和의 製粉工場附近、萬坪의 敷地에 設立케로되엿스므로 별한 纖維工業界의 話題로서 써부터 植物性蛋白質을 化學的으로 採取하야 다서 이를原料로하는 新製品으로 비로소 人造纖維界의 鮮明한 副產物을 내드리서 高度化하는 이만큼 人造羊毛의 期待를 갖게한다

經濟界消息

◯谷信託社長波東鮮信託社長谷多喜磨氏는 十九日發豫定으로 內地에 出張하는데 內地의 大信託의 經營實態를視察코저함이다

◯穀物協會理事會 朝鮮穀物協會에서는 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理事會를開催하고 左記件을 附議한다

一、穀物取引所問題에 對한件

一、正米市場に關한件

三、米船車運賃引上에關한件

◯不二興業總會 不二興業에서는 來二十八日定時總會를開催하고

一、當期諸決算案과利金處分案議決件

二、取締役村取締役任期滿了改選件

三、田監查役任期滿了改選件

消費節約運動

配給統制要諦

消費節約의 要諦인 物資의 配給統制中에 國內生產으로 自給할수잇는것은 國產用『펄프』와 皮革資原이고 棉花、羊毛에이르러서는 百『퍼ー센트』를 海外依存이며 其他도아래와가티 海外供給에 依存하는 것이다

(昭和十二年統計는 事變關係로 發表치안어서 十一年의 數字에 依함)

	生產	輸入
棉花(千俵)	一	三、三六
羊毛(千封度)	一	三七〇、五
石油(百萬升)	一、三	[illegible]
白金(瓩)	七	[illegible]

切符制度登場

世界大戰當時 交戰國이 取한事例에依하야 또現在獨逸을 비롯하야 統制經濟에 實施하고잇는것을보면 物價抑制와 配給의 公定, 其他는 價格의公定、其他最高價額이다

政府는 昭和十二年八月三日暴利取締令을 發動하고 最高價格을 設定하고 다시 綿布類에도 最高價格을 決定하엿스며 其後 昨年末『고무』에도 亦是 切符制度가 實施되어 五月一日부터 …

伊太利消費節約

最近의 世界不安의 縮圖는 伊太利의 戰爭이엿다 …

一、綿花、羊毛 二、燃料、動力 三、食料 四、衣料 五、肉類販賣店 六、水曜日에는 牛肉、羊肉、豚肉의 販賣를 停止하고 七、狩獵法에 規定된 …

一般的消費節約

(了)

今日의市勢(十九日)

株式 新低價後 反高

前場低迷 昨後場의 崩落後 外國의反撥이나 米國財界 … 前相의聲明으로 政局人氣이며 首相의聲明으로 政局도 큰動搖가 업슬것으로 認定되어 今朝寄付는 東新의 一圓一厘低 反撥等으로 反高이엇스나 … 新二百六十四圓九錢 大引되다

後場波瀾 … 東新百五十四圓丁 二百六十四圓六錢에 寄付한後 … 다시 反發하야 …

賣餘勢 七未盡

底入도不遠?

米期 反撥商狀 少高

前場保合 今朝反動三十四圓七十七錢 … 後場少高 …

賣方도亦警戒

結局保合乃己

仁川在米減少 四月十七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

米正 閑散裡 保勢

京城保合 …

仁川釘着 …

釜山閑散 …

大邱不變 …

群山少堅 …

木浦不動 …

海外經濟 (十九日)

市場六感

今日財界 (十九日)

朝取期米取組內容

銀行券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金利·手形交換

鑄油粕·麥粉

金銀價

證券

正租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京城物價(十九日)

株式 朝取短期

期米 朝取期米

砂糖 生糸 人絹 棉花 綿糸

[illegible]

銀重吉銀 買入石 金銀賣買會社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 電本一三八〇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京城 仁川 期米部·証券部 福 吉村取引店

益 京城 仁川 益東 證券